



광역일보

KB 국민은행
대구국가산업단지지점 개점
 달성2차산업단지 입구 웰빙온천 1층
 상담전화 : ☎ 053-617-3371

성주군, 성주환경 노동착취 눈 감았나

폴리앗에 맞선 다투 성주환경 미화원 눈물겨운 투쟁 어쩌나 성주환경 미화원, 군민이 내는 세금 '도둑질' 하고 있는데도 군은 방관만 하고있다 직격탄



성주환경이 또 다시 미화원의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때문에 성주군은 현재로 개인사무실 건축 폐기물을 치워주는 성주환경과 이를 비교하는 성주군 관계자를 문책하고 국가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어 번지고있다. 본지는(12월15일 1면 참조) 성주환경 미화원들은 지난 15년간 환경미화원 수를 부풀려 임금을 착취하는 것도 모자라 근무시간을 마치고도 별초하기, 별장 짓기, 고추밭에 풀베기

등 온갖 사적인 일에 노예처럼 동원된 사실을 알렸다. 또다시 문제가 된 곳은 지앤비 영어학원 철거 작업 현장이다. 지앤비 영어학원은 성주환경 S사장의 동생 소유학원으로 알려졌다. 성주군 환경과를 퇴임한 성주환경 총괄 책임자인 사무장 S씨의 지시로 환경미화원 17명이 6일간 업무를 마치고 교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무 임금으로 강제 동원된 현장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 성주읍 3길 4-1 위치한 지앤비 영어학원은 2층과 3층을 사용하다 약120평 규모의 칸막이와 바닥을 철거공사를 했다. 이곳에 성주환경 청소차량과 미화원이 업무의 시간에 불법으로 동원됐다. 한 철거 전문업자는 "철거비용은 평당 10만원 정도이며 석고와 타일은 별도로 지정된 폐기물 매립장에서 처리 돼야 한다"며 또 "잡 건 축폐기물인 경우 5톤 청소차인 경우 처리비용이 60만원 이상이며 타일인 경우 100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된다"고 했다. 보통 매립장에는 무게를 달아서 처리토록 돼 있고, 일반 건축폐기물인 석고와 바닥 타일 등은 폐기물매립장으로 가야한다. 그러나 성주환경은 구분없이 75톤규모의 폐기물을 쓰레기 매립장(성주읍삼산3길소재)에 매립했다. 즉 매립장 공무원이 눈 감아 준 것이다.

이는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성주군에서 개인 학원철거를 위해 지불한 것이고 미화원들은 노동력을 착취 당한 셈이다. 성주환경 미화원들은 "그동안 인간 이하로 살아온 세월에 보상을 하라"며 강제 동원된 철거 작업에서 자장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석고 분진을 마시면서 일을 해도 아무런 죄책도 느끼지 못하는 송대표와 인사무장을 향해 "어떻게 벼룩을 갠을 빼먹을 수 있는가?" 하며 성주군 환경과 담당공무원들과 싸우며 비난했다. 한 성주군민은 "성주군과 밀착된 비리가 얼마나 자행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클린성주"를 외치며 혈세를 지불하면서 일본까지 가서 선진지견학을 통해 클린성주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주군의 환경정책은 후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주환경 미화원들은 "성주 군민들이 내는 세금을 도둑질 하고 있는데도 성주군은 방관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상부 감사기관에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성주환경과 이를 비교하는 성주군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고 국가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주환경은 설립 당시 성주군 출신 공무원 8명이 설립한 회사며 성주군에서 년10억원의 예산으로 15년제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환경업체다. 기획탐사팀

예술특성화대학교(4년제)
대구예술대학교
 2015년 정시모집: 12월24일~30일
 2016년 편입모집: 1월4일~8일
www.dgau.ac.kr 입학문의 | 054-970-3191

'추모의 벽'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기억공간인 '추모의 벽' 제작행사가 열린 28일 오후 대구 중구 중앙로역에 설치된 추모벽에서 시민 및 유가족들이 화재 당시 모습과 희생자 추모공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는 중앙로역에서 50대 지적 장애인인 전동차에 휘발유로 불을 붙이면서 화재가 발생해 192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참사다.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생각한 건 조금도 없다"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시민단체 일제히 반발 법적 책임 지지않는 일본 사과 못 받아들여 소녀상 이전검토...양측정부 패권

"오늘 회담 결과 전부 무시하겠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사진·87)는 이번 한-일 정부의 군 위안부 협상 타결 내용을 두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조금도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국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검토한다는 말에 대해서도 "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우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도 시인할 상황인데 건방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아베 총리가 직접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회담 결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측의 미온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회담이 열린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는 이들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일본 정부가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고 기금을 조성해 위안부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은

반역사적 범죄 행위"라며 "기금 마련 정도로 사태를 봉합하려는 아베 정권의 태도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또 "윤병세 장관이 '본질적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소녀상 철거 등) 관련된 부분도 진전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일본 측 입장에 편승해 정치야합을 이루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베 총리는 소녀상 철거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아우슈비츠 추모비에 무릎 꿇은 빌리 브란트처럼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위안부 문제를 넘어 징병·징용 등 일본이 자행한 다른 만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한일 양측은 위안부 문제를 아시아태평양전쟁 전후 처리 문제로 확대 협상하라"며 "일제 강제동원 문제 전체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고 일제 한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사할린 강제역류·원폭피해 등에 대해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현 기자

"선거구 비상사태 1월1일 0시부터"...

직권상정 시나리오는 대구 1곳, 경북 5곳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보 상태인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직권상정을 구제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1일 0시부터는 비상사태에 돌입한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앞서 정 의장은 "현행과 같이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안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길 수 밖에 없다"며 여야에 최후 통첩을 날린데서 한발 나간 것이다. 일단 정 의장은 여야가 12월3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행 의석수에 따른 안을 선거구 획정위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위는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2대 1 기준에 맞춰 지역구 246석을 조정해 최종 구역표를 확정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의를 4-5번 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며 "의장이 획정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우리가 그간 요구했던 선거구

획정 기준이나 의원 정수 등을 다시 논의해 최종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지 여부를 자연스럽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최종안이 마련되면 이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안행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의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되고, 안행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정 의장은 1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1월8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과 같이 246석으로 결정할 경우 인구 산정 기준일인 올해 8월31일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만 9473명이다. 이 중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통·폐합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시도별로 △서울 1곳 △부산 3곳 △대구 1곳 △광주 1곳 △강원 3곳 △충북 1곳 △충남 2곳 △전북 4곳 △전남 4곳 △경북 5곳 △경남 1곳 등이다. 특히 현행 지역선거구를 인구편차 기준에 맞춰 조정하면 농어촌 지역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해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 의장이 직권상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식 기자



김문수, 대구 교통정책 제동 대구시내버스 노선개편에 쓴소리

4·13 제20대 총선 대구 수성갑에 출사표를 던진 김문수(64) 예비후보가 대구시내버스 노선개편에 쓴소리를 던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교통정책에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김 예비후보는 28일 대구시청을 방문해 대구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 지역 여론과 민원 등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많은 사람들이 황금동에서 서문시장, 동대구역, 경북대 등을 통과하는 버스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대노선, 골목노선이라는 이유로 이를 없앤 것은 합당하다고 할 수 없고 조속히 복원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버스정거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장치인데도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앞당겨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안심교와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의 교통 혼잡을 지적, 단계적으로 교통지도 요원의 투입을 제안하고 장기적으로 안심교 교통량을 분담하는 새로운 교량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용 기자

"현수막으로 인한 학교 차별화 막는다더니"

특성화고교 상당수... 일년 내내 대기업·관광서 입사 현수막 게시 대구교육청, 특별한 단속 규정없어

학교 차별화 등을 막기 위해 명문대 합격 등의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특성화고교를 대상으로 한 일명 '취업'에 관한 현수막은 게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도 있어 아니다. 일부 명문 특성화고교에서 관광서, 대기업 등에 취업한 학생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1년 내내 게시하고 있어 특성화고교 사이에 차별화를 낳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경북공고에는 정문 쪽 외벽과 남산역 방면 쪽 외벽에 대기업과 관광서에 입사한 학생들의 이름이 가로 4m, 세로 6m 폭의 현수막에 인쇄돼 게시되었다. 이 현수막은 계명대거리를 중심으로 명덕로와 남산로를 지나는 차량 및 보행자들에 눈에 쉽게 띄었다. 심지어 남산역 승강장 명덕역 방면에서도 이 현수막은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내용들이 쉽게 확인됐다. 학교 인근에서 오랫동안 아웃도어매장을 운영한 A씨는 "경북공고는 올해 초부터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현수막은 1년을 주기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름이 꽤 알려진 다른 특성화고교도 상황

은 같았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위치한 대구공고는 학교 정문에 현수막 뿐 아니라 LED전광판까지 제작해 1년을 주기로 대기업, 관광서 등에 입사한 학생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었다. 또 버스정류소와 가까이 닿았아있는 별관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힌 가로 5m, 세로 7m 상당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었다. 출근을 위해 매일 경북대 정문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L(여·33)씨는 "매일 같이 현수막이 눈에 띄어 자주 보게 된다"며 "학교의 우수성을 알리는 방법도 좋긴 하지만 굳이 사람의 이름을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걸고 있는 모습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특성화고교마다 학교의 우월성을 알리기 위해 내건 현수막이 목격되고 있음에도 대구시교육청은 어떠한 제재도 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명문대 등에 합격한 현수막에 대한 단속 규정은 있지만 특성화고교의 대기업 입사 등에 대한 단속규정은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등에서 대학 입학과 관련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단속대상에 포함되지만 특성화고교의 입사관련 현수막은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현수막이 분명 학교를 홍보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새 당명에 '더불어민주당'

약칭은 아직 미정...
 로고는 내년 1월 교체 예정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새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민주소나무당', '새정치민주당', '함께민주당', '희망민주당' 등과 함께

최종 후보로 올라온 더불어민주당을 새 당명으로 확정했다. 당명 개정 업무를 총괄한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새 당명은 '더불어 민주당'이다"라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당명은)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쉽게 입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라는 말이 앞에 있어서 국민·민주주의 여러가지와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과 더불어, 노동자와 더불어, 고3 엄마와 더불어, 장애인과 더불어 등으로 앞에 (수식어) 붙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약칭을 '더민주당'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확정하지는 못했다. 원의 민주당이 있어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약칭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무위에 참석한 의원 중 일부는 비공개 회의 때 새 당명에 '새정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안철수 신당에서 '새정치'를 선택할 경우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더 신선히다는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무위 결과에 따라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과에 당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당명 변화에 신경을 쓰기도 했다. 이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은 1년 9개월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3월 김한길 전 공동대표의 민주당과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이 합당하며 생긴 뒤 2년을 채 채우지 못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당명 개정에 따른 새 로고는 내년 1월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뉴스**

日 '군 관여' 인정... 아베 총리 사죄



공동기자회견 열어 합의안 발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것으로 한일 양국이 28일 위안부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또한 한일 양국은 이번 합의문을 끝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가 불가역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1시간 20여분가량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당시 군이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기사다 외무상을 통해 "내가총리대신으로서 위안부로서 고통을 겪

고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 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97억원)을 출연하는 방식이다. 이날 양국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점점을 찾았다. 윤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이 공관의 안녕과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확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독도·역사교과서 문제도 풀리나... 생각 한·일 관계 해빙무드 조성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을 계기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 해빙무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한·일 관계 정상화의 남은 걸림돌로 꼽히는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도 해결 전망이 밝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관계는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발언과 이에 맞물린 일본의 과거사 도발로 외교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2012년 말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내각은 2013년 2월22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인사를 처음 파견하는 등 영토·과거사 도발을 이어갔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협상과 독도, 역사교과서 문제 등 한·일 간 3대 현안 가운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일본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뉴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일본 측의 '성의 있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면서 남은 걸림돌도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독도는 상호 민감한 영토 문제인 만큼 중앙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서로 언급을 자제하는 쪽으로 갈 공산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다나야게(棚山)는 근근히 무시한 채 미움)가 본격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서로 그러는 동안 경제나 안보 등 다른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교과서나 과거사 왜곡 등도 일본 측이 자제하면서 분위기 호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기사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일본 언론들과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합의된 것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성과"라며 "일·한 관계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시대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도 진전시킬 소지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경제 부문에서도 양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쪽으로 협조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스**

朴대통령, 아베 총리와 통화 예정

위안부 협상 의견교환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에 앞서 아베 총리의 특사로 파견된 한·일 외

교장관 회담에 임한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을 청와대에서 접견한다. 앞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11월초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사다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위안부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합의안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총리가 사죄하며 한국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예산을 출연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기사다 외무상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위안부 협상안의 상세 내용과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와 통화에서는 협상을 마무리한 양국 정상들의 소감을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구상을 논의할 전망이다. **뉴스**

새정치연합 만든 김한길·안철수, 당명 개정에 '싸늘'

안철수 "포장지만 바꾼다고 내용 안 바뀌어" 김한길 "드릴 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개정한데 대해 창당 주역인 김한길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28일 관련 싸늘한 반응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3월 당시 민주당을 이끌던 김한길 대표와 독자신당을 추진 중이던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합당하며 탄생한 결과물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이 바뀌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1년 9개월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송년 기자회견에서 "(새정치연합의) 당명 개정에 대해 어떤 말씀을 드릴 처지는 아니다"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다. 그는 그러면서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고 이름만 바뀌었다. 포장지만 바꾼다고 해서 사



람들이 내용물이 바뀌었다고 믿겠느냐"며 당명 개정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한길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새 당명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제가 더 드릴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와 당무위를 잇따라 열어 새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 변경 신청도 마쳤다. **뉴스**

美 "군위안부 타결로 한일관계 개선이 미국의 국익"



미국 정부는 군 위안부 문제 타결로 한일 관계가 개선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케네디 신문을 윤병세 외교 장관과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 장관 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 고위관리가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일 양국의 국익이고 미국의 국익"이라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기대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아시아 중시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Barack Obama 행정부는 한일 양국과 연대 강화를

전략의 근간으로 두고 있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신문은 지적했다. 고위 관리는 "미국의 동맹인 한일 양국이 강력하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한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 안에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악화함으로써 한국이 중국으로 접근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따라서 한일 관계의 개선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조성하는 등 해양진출을 활발히 하는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뉴스**

미국 정부의 공식반응은 28일 현재 동부 지역이 새벽 시간이라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곧 날이 밝는 대로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게 확실하다. 앞서 동아시아와 태평양을 담당하는 다니얼 러셀 미국 국무차관보는 전달 한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일 지도자가 최종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러셀 차관보는 "역사적인 돌파를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 신문은 이날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정부에 군위안부 문제를 타결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북측의 한일 관계 소시통을 인용해 미국이 그간 한일 간 대립을 반복하지 말라고 양국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뉴스**

박승호 예비후보, '1만원의 행복 후원회' 현판식

새누리당 박승호(포항 북) 예비후보는 29일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후원회의 출범과 함께 현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육거리 삼성빌딩 1층에서 하은수(전 부장검사·변호사), 이동욱(전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동후원회장과 후원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승호 예비후보에게 '1만원의 행복'으로, 반듯한 희망의 정치 실현 박승호라고 적힌 후원 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하은수 후원회장은 "내 손으로 반듯한 국회

의원을 뽑아서 깨끗한 정치문화, 희망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1만원의 소액 기부로 법정모금한도액 1억5000만원을 달성해 새로운 정치후원금 모금 활동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승호 예비후보는 "1만원 행복 후원회"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해달라는 지역민들의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로 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정치문화를 열원하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깨끗한 정치, 희망의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동 기자**

상생정치연구원 손종의 원장, 대구 동구에 '출사표'

19대에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상생정치연구원 손종의 원장이 이번 20대 총선에 또 한 번의 출사표를 던졌다. 손 원장은 28일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상생정치연구원에서 상극정치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의 문제점을 날날이 지적하며 "국민과 함께 정치혁명을 일구어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겠다"고 이번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손 원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국민과 함께 정치혁명을 통해서 적절하고 새정치의 패러다

임인 상생정치를 실현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상생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생정치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여 국방 및 복지 예산으로 쓰여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어 "K2 이전, 남부권선공항 밀양 유치, 동대구역세권 활성화, 혁신도시 활성화, 철도복합단지 활성화, 동대구벤처밸리,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건설 및 활성화, 신암뉴타운 건설, 국경교과서지지,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영호 자유원 기자**

"노동 5대 법안은 노동자 서민 죽이는 법안이다"

조명래 정의당 예비후보 서민을 위한 법 만들겠다



조명래 정의당 예비후보(북구 을)는 28일 제3공당 등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5대 법안'을 막아내고 서민을 위한 참된 법을 만든다는 노력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박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5대 법안은 청년 일자리 해소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로 가득 차 있다"며 "이 법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서민의 삶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재벌의 책임과 의무가 당연히 되어야 하는 사회적 구조"라고 강조하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 함께 연대해 서민을 위한 법을 만든다는 온 힘을 발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자유원 기자**



광역일보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3

바르게살기운동 실천, 국민 대통합 밑거름!

2015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대회, 고령 개최

2015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대회가 28일 고령 대가야문화누리에서 열렸다. 행사에 김관용 경북지사, 윤창욱 경북도의회 부의장, 이완영 국회의원, 박용환 고령군수

등 도내기관단체장과 내빈, 시군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한 해 동안의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성과를 총 결산·마무리하고 그 동안 일선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계승·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애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을 위로, 격려하며 바르게살기운동 확산을 통해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정부포상(국민포장 1, 대통령 표창 2)을 비롯해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희생·봉사정신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한 유공자 52명에 대한 표창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관용 경북 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은 이 시대에 필수 불가결한 운동이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구현에 앞장서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주역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이다”고 말했다.

김양수 기자



전국서 가장 안전한 수련원 ‘도청소년수련원’



종합만족도 96.4% 달성 학생 93%, 인솔교사 99.8% 수련원 이용 후 만족도 높아

2015 을유년 경북도청 수련원은 가장 바쁜 한해였다.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여파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수련활동을 마쳤다.

이결과 7만5000명의 많은 인원이 수련원을 이용해 인기를 실감케 했다.

■ 전국서 가장 안전한 수련원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경북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수련활동 시설물과 전기·소방 등 재난 취약 분야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정밀안전점검을 하고있다.

자체적으로도 매월 1회 종합안전점검에서 안전도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학부모 안전체험 캠프’를 실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캠프는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활동하는 학부모들이 참여, 직접 수련시설과 차레표를 체험해 보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계획표이다.

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사, 일반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비 10억 원을 들여 강당 및 생활실을 새단장

하고 시설물 안전 보강사업을 완료했다.

2016년도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 5억원(도비)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안전한 수련원 구현에 노력한 결과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종합매뉴얼 활용 및 개선사례 공모전 대상’과 ‘청소년활동 안전약속 셀카챌린지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아 전국 최고의 안전한 청소년수련시설로 평가 받고 있다.

■ ‘바른 인성 가꾸기 계획표 개발·운영 강화’ 청소년의 수련활동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전통예절교육 전문기관인 아예예절교육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통예절, 다도예절, 공방예절 등 예절교육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 글로벌 품위 등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함양할 수 있는 계획표를 새로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다문화 이해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관용과 수용, 세계적 마음을 형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의 역점사업인 ‘할매·할배의 날’ 조기 정착과 확산, 청소년들이 효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효(孝)실천동아리 운영,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건전한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넓혀나가고 있다.

■ 청소년 ‘나라사랑정신’ 확산 기틀 마련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청소년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독도사랑카페’를 운영하고있다.

독도바로알기 퀴즈, 독도OPS공예, 독도사랑서명운동 등을 통해 독도 영토 수호 의지를 청소년들에게 확산시키는 선도본보기로 평가 받고 있다.

경북의 4대정신(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정신)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해 교육함으로써 나라사랑과 경북사랑의 초석을 다져나가고 있다.

직원들이 직접 태극문양 바람개비를 이용해 ‘태극동산’을 조성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

■ 수련활동 만족도에서도 단연 ‘옴’ 올해 수련원을 이용한 학생 및 교사 1만 4800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도 단연 돋보인다.

학생들의 종합만족도의 경우 ‘매우만족’ 67.1%, ‘만족’이 25.9%로 지난해 보다 2.3% 향상된 총 9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인솔교사 종합만족도에서도 99.8%의 매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건·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고품질의 수련계획표를 제공하는 등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봉란 여성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시설 제공과 창의적이고 유익한 수련계획표 개발·운영에서 전국 최고의 청소년수련시설로 정착되도록 더욱 정진해 나간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상주에 뽕생산 대단위 단지 건설된다

뽕생산 건강산업단지조성 국비확보 내년 본격 추진

상주가 대한민국 최고의 양장도시로 발돋움한다.

경북도와 상주시는 2012년 12월 공동으로 경북 생명건강산업특화단지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과 금년에는 뽕생산 건강산업단지 학술용역을 통해 전국 양잠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갈 야심찬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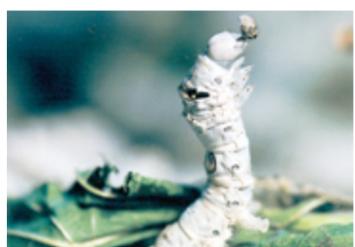
올해에는 웰비잉(Well-being 심신의 안녕과 행복추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생명건강산업 관심도 제고 및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파악, 생명건강산업과 명주산업 핵심 거점화를 구축해 나갈 6대 세부사업을 마련했다.

■ 생활기반 구축

산과 숲에 대한 녹색건강 이용증진 수요에 따라 뽕생산 대단위 단지 생활기반을 구축한다. 상주시 이안면 구미리, 안용리 일대에 2017년부터 2020년(4년간)에 걸쳐 시유림 100ha에 뽕나무 생산단지, 산봉집하장, 선별장, 공동작업장 등 뽕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경북도와 상주시는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2016년도에 뽕생산 건강산업단지 타당성 연구를 위한 국비 2억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 명주 융·복합 거점지구 조성



양잠과 곤충을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R&D거점화와 친환경 고부가가치 기능성 양잠 및 곤충산업 육성 연구체계 마련을 위해 함창명주테마파크 내에 2017년부터 2020년(4년간)에 걸쳐 교육시설, 연구시설, 가공시설 등 70만㎡ 명주 융·복합 거점지구를 조성한다.

■ 뽕음식체험관 건설

상주 대표음식과 함께 뽕 요리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먹거리존을 위해 뽕음식체험관 및 연구관, 뽕광장, 먹거리 타운 등 뽕문화 푸드타운(Food-Town)을 슬로푸드전통음식체험관 일대에 만든다.

■ 전통 양잠산업 기반조성

양잠산업을 고품질 친환경 양잠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조성으로 양잠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기능성 양잠기반 조성, 양잠산물 제품생산 다양화 사이버 양잠체험과 양잠지역 스테이 체험 등을 위해 및 활성화사업도 결된다.

■ 전통 뽕나무길도 조성

다섯째로 자연친화적인 지역 슬로시티와 산뽕(명주)을 연계할 수 있는 뽕나무길 조성을 위해 뽕나무 상징공원 조성, 가로수 조성, 시설물 설치 등 읍한다.

■ 바이오·메디산업도 육성

입는 실크에서 ‘바르고, 먹고, 치료하는 실크’ 산업을 위해 실크펩타이드 국내·외 기술개발을 위해 R&D시스템 구축, 기술지원을 위해 실크펩타이드 관련 기반 바이오·메디산업도 육성해 나간다.

도와 상주시는 3여년에 걸쳐 6억원을 지원, 상주명주 사업의 활성화 일환으로 상주의 합창 명주와 영천의 천연 염색의 연계 사업을 통한 전통 문화의 산업화를 위해 천연염색 후원자 활동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해 나간다.

상주명주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자립마을을 유도하고, 수도권 갤러리에 경북 특별전, 국가공인 품질인증 등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한몫

경북도는 상주지역에 명주융·복합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기존 누에고치·뽕 생산에서 탈피한다.

이를 가공한 화장품, 의약품, 웰빙식품 등 기능성 식품과 대체 의약품 개발을 담당, 향후 신 고부가가치 산업인 양잠산업을 지역 체험관광과 접목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경북도와 상주시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계획중인 제2차 기능성 양잠산업계획(2016-2020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됐다.

앞으로 양잠산업에 기반이 되는 뽕생산 대단위 단지가 건설되면 상주 양잠산업 허브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재영 기자

오늘 구미연구개발특구 지정 주민공청회

구미 금오테크노벨리 LG디스플레이 1.95km² 대구 연구개발특구 포함



구미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주민공청회가 29일 구미 IT(정보통신기술)융합기술센터에서 150여명의 구미시민과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대구연구개발특구를 구미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청회에서 특구지정 필요성과 지정요건 검토, 특화산업, 특구육성방안 등을 담은 특구육성 종합계획(안)이 발표된다.

이날 발표되는 특구 추진지역은 구미 금오테크노벨리, LG디스플레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금오공과대학교, 경운대학교 부지 등 면적은 1.95km²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특정구역으로 2005년 대덕특구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전북 특구가 지정됐다.

전국에 5개의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돼 있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에 소재하는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세제혜택(3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등)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R&BD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구미지역에 연구개발특구를 추진하는 배경은 대기업이 떠나가는 어려운 구미경제를 살리고,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와 함께 지역 내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미지역은 국가산업단지내에 201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 등록율이 높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에 47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있어 특구의 목적에 맞는 우수한 지역이다.

구미지역의 특화사업은 스마트IT, 의료융·복합기기, 그린에너지, 메카트로닉스로 대구 특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특화분야를 그대로 활용한다.

이는 구미지역을 대구특구의 생산기지로 보고, 상호 연계한 사업을 추진, 동반상승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구 공청회를 계기로 지역내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을 육성하고, 국내외 글로벌 기업을 유치, 고용을 창출, 지역내 IT기반 연구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특구 육성종합계획을 보완해 조만간 미래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다.

신청서는 관계부처 협의(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교통부)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은진 기자

도청신도시 내 첫 주민 입주 ‘환호작약’



현대아이파크 644세대 입주 시작 내년 4월까지 4개단지 2천여세대 입주

내년 2월 경북도청 이전을 앞두고 12월 28일 도청신도시 내 아파트에 첫 입주자가 시작됐다. 이번엔 첫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는 지난 21일 준공된 ‘현대아이파크’ 489세대 중 19세대 47명이다.

2012년 9월 도청신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한 이래 3년 4개월만에 첫 아파트가 준공되고 신도시에 주민 이주가 시작 됐다.

내년 4월까지 4개단지 1931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한다.

경북도와 예천군은 입주를 시작하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첫 입주 환영행사를 아파트 현장에서 열었다.

행사에 도청신도시본부 김상동 본부장과 이현준 예천군수, 아파트 입주민, 이웃 호명면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꽃다발 전달, 주민등록전입신고, 도로명주소 문패달기(현관식)를 진행했다.

도청신도시 초기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이동민원실을 설치, 주민등록 전입 등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 입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첫 입주 주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신도시의 모습에 앞으로의 생활이 한결 기대 된다”고 했다.

김상동 경북도청신도시본부장은 입주민들에게 “도청신도시 첫 주민이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도청신도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춘 명품신도시로 건설해 입주민들의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원식 기자

‘경북형 농업회의소’ 설립 잔결을

경북도 농업회의소 설립방향 토론회가 28일 경북대 농생대 1호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인단체 대표, 대학교수, 대구경북연구원, 봉화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등 민·관·학 관계전문가 20여명이 참가했다.

경북도 관계관의 ‘경북형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계획’설명에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연구위원의 ‘경북도 농업회의소 설립

방향’이란 주제발표와 손재근 경북FTA특별대책위원장, 경북 농업인단체 상임대표 등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농업회의소는 지역 농어민의 지위향상과 농정분야의 각종 의견이나 건의 등을 종합·조정한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북도농업회의소 설립 방향에 대해 ‘시군 농업회의를 기본단위로 하는 상향식 구성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우현 기자

사회

광역시일보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4

심학봉 전 의원, 뇌물수수 혐의 기소

경북지역 중 중소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이 기소됐다.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심 전 의원은 지난해 경북 김천의 A사로 부터 정부의 우수중소기업 지원사

업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는 것을 도와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700여만원을 받았다. A사는 이 돈을 직원들을 동원해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의원은 또 A사가 국가 연구개발과제 신청 등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사 대표에게 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심 전 의원의 대학 동기이자 대학교수인 김모씨는 지난 11월 구속했다. 한편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시내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대구지검은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지우현 기자

동반자살... "누구도 그들을 못 구했다"

숨가쁘게 달려온 을유년 자살행렬... 우울한소식만

숨가쁘게 내달려온 '을유년'(乙未年)도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져간다. 한파주의보도 발표되면서 혹독한 냉기가 쪽방에서 나홀로 생활하는 빈곤층의 뼈속까지 파고 든다. 을유년 끝자락 온통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면서 세밀이 너무 암울하다. 자살 행렬이 꼬리를 물고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빈곤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택하면서 자살이 마치 사회적 신드롬이나 유행병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이 뿐아니라.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자살 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이로인해 우리 사회의 생생 경시 풍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실제 자살사이트에서 만는 사람들이 동반자

살을 선택했다. **■ 남녀 3명 동반자살** 냉기가 파고드는 한겨울 승용차서 남녀 3명이 나란히 숨진채 발견됐다. 동반자살로 추정된다. 문경의 야산 입구 승용차에서 남녀 3명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0분께 문경시 마성면의 한 야산 입구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A(29·인천)씨와 B(25·부산)씨, C(18·인천)양 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차량 안에는 착화탄과 연탄을 피운 흔적과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아빠 죄송하다", "장례식은 필요 없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숨진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함께 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B씨와 C양이 이를 발견하고 A씨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연령대와 주거지가 모두 다

른 점 등으로 미뤄 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나 동반자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 경북지역 자살사망률 31.1명...** 경북지역의 한해 자살사망률이 3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경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자는 883명으로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은 31.1명에 달했다. 자살 사망률이 30명을 넘는 시도는 경북을 비롯해 강원(38.5명), 충남(37.4명), 충북(34.8명), 제주(32.9명) 등 7곳이다. 대구(26.8명)와 서울(25.6명), 광주(22.6명) 등지는 전국 평균인 28.5명을 밑돌았다. 경북경찰청은 "1990년대 중반 10명 안팎에 머물던 자살사망률이 외환,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세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살의 사회, 경제적 원인을 외면하고 개인의 심리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니 종합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김성용 기자



대구 수성소방서, 소방관 심실안정실 운영

대구시 소방서 중 최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방관의 근무여건과 관련, 대구 수성소방서가 각종 재난 현장 출동 후 소방대원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극복과 심리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심실안정실'을 운영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에선 처음으로 운영되는 심실안정실

은 수성소방서 1층에 51㎡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에선 마사지와 오디오 및 영상시스템 등이 설치돼 소방관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수성소방서 관계자는 "심실안정실은 재난 현장에 고통 받는 소방대원들의 힐링공간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예방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우현 기자

중앙로역 '기억의 공간' 추모벽 설치 제막 행사

안전교육장 활용으로 생활속 시민 안전과 생명존중 승화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현장을 보존한 추모벽이 사고 발생 12년 만에 추모공간으로 조성돼 28일 오후 5시 공개됐다. 2003년 2월 18일 당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을 지나던 전동차에서 불이 나 192명이 숨지고 148명이 다쳤다. 대구시는 중앙로역 지하 2층 사고 현장 일부를 보존하다가 '기억의 공간(추모벽)'으로 조성해 이날 제막식을 했다. 제막식은 지하 1층에서 퓨전국악과 현악4중주 영령을 위로하고, 추모벽 조성 경과보고 등 식순에 따라 진행됐다. 이어 희생자 가족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동희 시의회 의장, 추모벽추진위원, 안전문화재단 이사 등은 지하 2층 기억의 공간으로 가서 현판을 제막하고 헌화했다. 시와 피해자 단체는 2003년 5월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데 뜻을 모아 추모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2005년 추모벽설치위원회를 구성해 국내외 시설 벤치마킹과 의견 수렴을 했으나 피해자단체 간 갈등으로 일정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4년 6월 사업 재추진에 들어가 8월에 사업추진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지난달 설치를 마쳤다. 기억의 공간은 국민성금 5억2000만원을 들여 길이 27m, 폭 3m, 340㎡ 넓이로 조성했다. 내부는 '새김과 스며들기'라는 의미를 담아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외부는 공감과 치유를 위한 마음을 담은 작품으로 구성했다. 새까맣게 그을린 추모벽에는 유가족과 시민이 손가락으로 남긴 애절한 내용이 가득하다. 사고 후 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개선, 승객 대피시설 마련, 비상 대응 매뉴얼 개발, 역사 내 안전관리인력 확보 등 지하철 안전에 주력했다. 또 동구 용수동 팔공산 동화집단시설지구에 250억원을 투입해 시민안전테마파크와 안전 상징 조형물을 조성했다. 당시 불에 탄 전동차 12량 가운데 1량은 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기억공간인 '추모의 벽' 제막행사가 열린 28일 오후 대구 중구 중앙로역에 설치된 추모벽에서 유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다. 지난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는 중앙로역에서 50대 전동차에 휘발유로 불을 붙이면서 화재가 발생해 192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참사다

민안전테마파크에, 2량은 안심차량기지에 남아 있다. 나머지는 고철로 매각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추모벽 제막으로 대구

가 미래 생명을 중시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자"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대구시 "2016년 도심산업단지 약취 줄인다"

약취감시시스템 구축 등 약취저감사업 추진

대구시는 산업단지 및 환경기초시설 약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에는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약취저감 노력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8일 대구시는 그동안 새동네 환경개선 T/F 팀, 민생현장 시장실 운영을 통해 백연저감 방지시설 도입, 주민약취모니터링 운영 등 여러 가지 약취저감 사업을 발굴·추진했으며, 2016년에는 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 지역은 염색산단·서대구공단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약취 및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대기환경이 열악하고 생활불편 민원이 상존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에는 염색산단내 주요 약취배출원의 약취배출량을 조사해 관련업소와 약취 자율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부터 염색산단 약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사업주 환경시설 투자 의식 제고를 위한 약취자율저감목표제를 본격

시행한다. 또한 사업비 7억3천만원을 투입, 염색산단 지역에 대기중 약취물질 농도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감시센스 20개, 서버 1세트)을 구축해 약취물질 농도가 높은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약취물질 배출업소 단속효율 제고와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천리위생매립장의 매립가스 자동화연소기 설치 및 약취저감 방안 용역,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약취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 약취저감 노력도 한층 더 강화한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7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개 도심산단 전체에 대한 '공해해결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도심산단별 차별화된 대기오염 저감방안을 마련해 염색산단·서대구공단·3공단 재생사업의 올바른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대구시 신경실 녹색환경국장은 "이러한 일련의 대기환경개선 노력이 약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대구시를 맑고 푸른 건강한 생태도시로 가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우현 기자

"서민 침해 행위 무관용 원칙" 허영범 대구경찰청장 취임



허영범(사진·57) 치안감이 28일 대구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26대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허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시민들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치안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시민에게 따뜻한 대구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 청장은 경기 출신이며, 간부후보 33기로 1985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한 뒤 대구경찰청 차장과 경찰수사연구원장, 충남청 차장, 서울청 보안부장, 경찰청 수사기획관, 서울청 수사부장, 경찰청 보안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우현 기자

"사소한 불법부터 엄정 대처" 조희현 경북경찰청장 취임



조희현(사진·51) 치안감이 28일 제28대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조 청장은 취임사에서 "소통하고 참여하는 든든한 생활치안은 경북경찰의 약속이자 책임"이라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이 만족할 정도의 안전과 질서 확보,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임무수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관되고 흔들림 없는 법 집행으로 범죄지시 중심을 확립해야 한다"며 "사소한 불법부터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북경찰이 실천해 나갈 과제와 방향은 기초치안의 품질을 더욱 높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일관되고 흔들림 없는 법집행을 통해 범죄지시의 중심 확립, 서

로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세심한 조직혁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청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경신고를 졸업했으며, 경찰대학 2기로 1986년 경찰에 입문해 주로 정보와 생활안전 분야에서 근무해 왔다. 또 경무부으로 승진 후 경찰청 정보보안관, 경북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치안감으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지냈다. 아울러 그는 2013년 경북경찰청 차장 시절 강신명 당시 경북경찰청장이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약 2개월간 경북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하기도 했다. 지우현 기자

대구시 '내년에 달라지는 유용한 제도' 홍보

대구시는 28일 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6개 분야 51건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는 행정서비스의 이해를 도모하고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 있는 지방세·세제와 보건·복지, 재난·안전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제도와 시책이 수록돼 있다.

민원·행정 분야에는 28개의 민원과 제안 등의 채널을 하나로 통합한 '두드림소 운영' 등 3건이며, 지방세·세제 분야는 사업주의 면세기준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 급여액으로 조정하는 등 6건이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는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를 시간당 인상하고 노인인지(틀니) 건강보험 적용인원을 현재의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하는 등 11건이며, 경제·환경 분야는 최

저임금제 인상과 구·군별로 다른 생활 폐기물 수수료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9건이다. 아울러 건설·교통 분야는 택시 구입·운영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시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계획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등 6건이며, 재난·안전 분야는 시설물 지붕의 세설·제빙 책임 확대 등 6건이다. 김만주 대구시 기획담당관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대구

광역시보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5

중구 남구
동구 수성
북구 서구
달서 달성



강대식 동구청장은 29일 동내동에서 열리는 '동내혁신과출소 신축 개소식'에 참석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29일 비산7동 비단카페에서 열리는 '비산7동 안전마을 비단카페 개소식'에 참석한다.



백광식 북구청장은 29일 집무실에서 개최되는 '북구청 불린선수단 공로패 및 임용장 수여식'에 참석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29일 군청상황실에서 열리는 '착한기업 헌관 전달식'에 참석한다.

서구청 의례적 직원 중무식 "연탄배달 봉사로 대체한다"

서구청이 의례적인 직원 중무식 대신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배달 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서구청 간부공무원 등 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4개 권역으로 10개 조로 나눠 20가구에 5000장(250만원 상당)의 연탄이 전달된다. 연탄은 직원들이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됐다.

한편 서구청은 의례적인 중무식에서 탈피해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매년 새로운 방식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기금 600만원을 들여 독거노인 및 노점상인들 300여세대에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긴 하지만 따뜻함을 함께 하는 겨울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수성구, 2016 丙申年 천을산 해맞이 축제



수성구가 2016년 병신(丙申)년을 맞아 천을산에서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

28일 수성구는 내년 1월 1일 오전 7시께 고산동 천을산에서 '2016 천을산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선 새해 아침을 여는 두드림 팀의 모듬북과 민요 공연을 시작으로 꿈꾸는 시어터 예술단의 웅장한 대북 타고 공연 '태동'과 소원성취 기원무 '비상'으로 일출을 맞이한다.

이어 2016개 소망풍선 날리기와 해오름 합성, 남성 중창단 아르스노바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희망콘서트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사 시작 전 등산로 중간에서 소원지 쓰기, 물방이와 함께하는 희망포토존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수성구 새마을회는 행사 후 고산초등학교 후문에서 떡국을 제공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2016년 새해를 맞아 주민 모두가 천을산에서 진취적인 희망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알뜰한 운영으로 부채 없는 '중구'

중구청, 지방채 조기상환

중구청이 최근 지방채 총 33억원을 조기상환했다.

28일 중구청은 재정 건전화에 위해 지방채 전액을 조기상환 했다고 밝혔다.

중구가 보유한 지방채는 패션주얼리 전문 타운 건립에 20억원, 남산4동과 대봉1동 주민

센터 신축에 각각 5억원과 8억원 등 총 33억원이다.

이번 조기상환의 재원은 중구 자체 긴축재정으로 절감한 경상경비와 순세계잉여금이며 최대 10년을 앞당긴 조기상환으로 절감한 이자액만도 총 6억2천만원에 달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의 세금

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 건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대구시 지자체 중 채무비율이 가장 높다.

지우현 기자

여성가족부가 인정한 '수성구청소녀수련관'

2015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획득



수성구청소녀수련관이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15년도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아 5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398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제반시설, 프로그램, 조직, 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했다.

수성구청소녀수련관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을

비롯해 봉사활동, 진로체험활동, 문화강좌, 체육강좌,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모든 부분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로 수성구청소녀수련관은 장관상 수여, 인증등판 게시 및 공모사업 참여시 우선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노력이 더해져 결과로 소중한 상을 받게 됐다"며 "내년에도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기를 수 있는 유익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우현 기자

출생신고와 수당신청을 '한번에'

북구청 '원스톱 서비스' 실시

북구에서의 출생신고와 출산관련 수당신청이 쉬워진다.

28일 북구청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축하금과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내년 1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출생신고 후 다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지금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출생과 관련된 각종 수당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 다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북구청은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구청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장비 보강 등을 거쳐 내년 1월 4일부터 구청 1회 방문으로 출생신고와 수당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대상은 북구 주민으로 양육수당은 첫째 이상,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은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모든 가정이 해당된다.

신청절차는 출생신고 시 해당 수당신청서를 작성하고 부모명의로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북구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여러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출산장려와 영유아의 보육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우현 기자

'2015 달성군새마을지도자대회' 달성군새마을회

달성군새마을회는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한 해 동안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를 종합 결산하고,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한 일선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2015 달성군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종진 국회의원, 김문오 군수, 채명지 군의회 의장 및 시·군의회, 각급 기관·사회단체장을 비롯해 남·여 새마을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박갑향 부녀회장은 달성 토마토 축제 때 먹거리장터를 운영해 모은 수익금으로 라면 100박스(200만원 상당)를 달성군에 전달했다.

행사는 2015 새마을사업 보고, 우수지도자 표창, 달성군새마을회장 대화사, 군수, 국회의원, 의장 축하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지도자 시상에서 구지면협의회, 임정이 회원읍부녀회장이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성기상(화원읍협의회), 황태용(협동면협의회), 방분화(현풍면부녀회), 이순분(구지면부녀회)씨가 대구광역시장상을 수상하는 등 총 27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이성근 달성군새마을회 회장은 "올 한해도 새마을지도자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훈훈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하고 "새마을 정신의 실천 다짐과 의지를 결집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내년에도 지역 가꾸기의 일선 운동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헌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남구청, 식중독 예방 강화에 나서

남구청이 겨울철에 방심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 강화를 위해 사전점검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겨울철에 발생률이 높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환자나 혹은 어패류 등 식품 또는 음식 등을 통해 쉽게 전염되며, 근육통과 설사를 동반한다.

남구청은 식중독이 우려되는 집단급식소와 어패류 등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해 겨울철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집단급식소 42개소와 식중독의심신고업소 8개소 등으로 △조리장내 시설기준 적합여부 및 청소 등 위생상태 △중독사자 개인 위생관리상태 △노로바이러스 예방 홍보교육 여부 등을 점검한다.

남구청은 일상생활에서 식중독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해 겨울철 식중독 제로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병현 남구청장은 "식중독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로 식중독 및 식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우현 기자

동구, 자원봉사자 대상 "영화관람 할인혜 드려요"

동구-(사)대구동구자원봉사센터 -롯데시네마 율하관, MOU 체결

동구청, (사)대구동구자원봉사센터, 롯데시네마 율하관은 28일 동구청 회의실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영화관람 서비스 우대적용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대식 동구청장, 김태영 동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준규 롯데시네마 율하관 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우수 자원봉사자(실적 시간 50시간 이상 / 자원봉사증 제시)에 대해 영화티켓 현장 구매 시 영화료를 개인 당 3000원을 할인해주며, 동반 3인까지 가능하다. 단 조조할인 등 중복할인은 제외된다.

영화료 할인서비스는 대구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선 동구가 처음이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보상정책을 강화해 나눔과 봉사를 통한 큰 행복 도시 동구로의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달성군 다사농협, 불우이웃돕기·경로당 난방비 지원

달성군 다사농협은 지난 22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220만원 상당의 쌀과 지역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800만원의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했다.

다사농협은 관내 20개소의 경로당에 40만 원씩의 난방비를 전달했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1%씩을 공제해 모은 성금으로 쌀을 전달했다.

구자학 다사농협 조합장은 "농협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하지만 우리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는 곳이 더 많은 것이 매우 아쉽다"며 "자발적인 성의로 매년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고 있는 임직원들의 마음 씀씀이가 고맙고 가슴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대구시 "재난 제로(zero) 안전도시 기반 마련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대구시는 24시간 상시적 재난 감시가 가능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기관간 긴밀한 협업과 함께 '재난 없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들어 갈 기반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국비 10억원을 투입,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최근 완료함으로써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상황판단으로 각종 재난상황에 조기 대응하고 효율적인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GIS(지리정보) 시스템 기반의 '스마트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스템'은 24시간 지역의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 해 전파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감시용 고성능·고배율CCTV, LED상황판, 모바일현장대응·영상회의시스템, 119신고시스템, 교통·불법주정차·재난및방범용 CCTV 연계시스템, 국토교통부 및 기상

청 연계 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도화 사업은 재난발생 및 신고정보 수집 기능 확대, 고성능·고배율 CCTV 도입,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연계, 재난안전 대책본부 상황판 영상시스템 개선, 시스템 보안장비가 추가 도입됐다.

사업 완료에 따라 기존 119재난신고정보 위치 표출 외에 부근 CCTV 자동 표출, CCTV 영상정보, 기상정보 확대 연계로 재난 관리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해 각종 재난관련 정보에 관한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됐고, 향후 각종 재난 유형별, 상황별 업무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 기반 대응 업무를 발굴해 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연계 시스템을 도입해 재난 취약지인 일반주택 밀집 지역의 화재나 폭우, 대설 등으로 인한 교통마비, 교량 및 저지대 침수 등 자연재해가 우려될 경우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최근에 구축·운영 중인 민원·제안·콜 통합관리시스템(두드림)과도 연계해 재난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 박종률 사회재난과장은 "앞으로 국민안전처, 구·군, 소방 안전본부와의 협업으로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 북구 칠곡, 수성구 일부 지역 등에 재난감시용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재난안전망을 확충해 대구를 재난 없는,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우현 기자

경북

광역일보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6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이강덕 포항시장은 29일 남포항플랫폼에서 열리는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개통 사전행사'에 참석한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29일 외동휴게소 일원에서 열리는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9일 오후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리는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제4차 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29일 울진군체육진흥추진단 소속 울진군요트학교 요트(카타마란)시승식에 참석한다.

울릉군, 학교운동장 임시주차장 개방

울릉군은 동절기 저동지역의 주차난 및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관내 우산중학교(장인기 교장)와 협력, 동계 방학기간인 오는 1월 1일부터 1월 24일까지 학교운동장 임시주차장 30면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울릉도는 지역특성상 도로의 경사도가 심하고, 도로폭이 협소해 동절기 폭설이 발생할 경우 불법 주정차량의 견인이 사실상 어려워 매년 제설작업 지연 및 차량 소통장애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저동의 봉래길 일원에는 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어 이면도로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동절기 학교운동장 임시주차장 개방'은 지역사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학이 협력해 방학기간 사용되지 않는 빈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공유해 주차민원을 해소하고 나눔과 공유의 문화를 확산코자 실시하게 됐다.

정훈환 기자

강구일번지 공인중개사 매물접수환영
영덕군, 강구면, 영해면 등
 동해안 모든 지역 **땅문의하세요**
 최선을 다해 선별해 찾아 드리겠습니다.
 TEL. 054)734-8989 / 010-6767-9997
 대표 황성학

포항시, 지역복지사업 우수지자체 최우수상

포항시가 2015년 지역복지사업 우수지자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28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기관 표창과 함께 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2015년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사례 3개 분야 평가'결과 복지전담체계 개편부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협의체 지원실적, 업무추진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되 분야별 우수사례 내용 및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포항시는 전반적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권혁동 기자



경주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사업 성과 확산 개선점 등 현장 목소리 청취

2016년 개편 시행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 지역 전략 및 특화 산업의 눈높이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육성과 내년도 사업정책 방향 설명 등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일자리 공시제 컨설턴트, 관련 실무자간 간담회가 지난 23일 보문단지 내 카오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올 한해 맞춤형 일자리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수행 중 여러 가지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점 등을 토론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실무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박차양 창조경제과장은 "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와 시민들의 참여도 많은

일자리 성과가 있었다며 한 해 동안 묵묵히 임해 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내년도 많은 성과와 우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공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15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변경되는 사업홍보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등 기관 간 협력과 연대를 위해 시가 가교역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6년 사업을 위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실무자 중심의 간담회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주시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이행 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016년 고용정책 중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는 지방보조금 형태로 지원 된다. 주요 사업으로



는 지역고용혁신추진단 구성, 고용포럼 운영, 컨설팅지원 사업, 지역활동지원 활용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지역혁신프로

젝트 사업, 고용창출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며, 교육훈련은 최소화 할 방침이다.

윤용찬 기자

영덕군, 따뜻한 맞춤형 복지로 주민 행복설계



영덕군,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취약계층 대한 지원 사업 확대

영덕군은 2015년 올 한해에는 '주민행복을 향한 맞춤형복지 실현'을 목표로 군민 한사람 한사람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촘촘한 복지를 펼쳐왔다.

먼저 영덕군은 군 복지의 기준이 되고 복지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을 수립해 군민의 복지욕구에 맞는 새로운 복지시책 개발하고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저소득가구·노인·장애인·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또한 공공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례관리 강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민·관 연계를 강화해 효율적·효과적인 복지지원

배분 및 중복수급을 방지하는 등 지역사회 일선 전달체계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이와 함께 노인인가가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는 고령화시대에 부응해 독거노인 등 안전을 위해 응급안전 돌봄이 대상자를 본격적으로 확대·운영했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맞춤형 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확대 등 각종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노후를 보다 유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는 한편,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할매·할매의 날'을 추진해 할매·할배와 손녀녀 간의 소통방법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변화를 유도해 경로사상 등 확산에도 노력했다.

군내 220가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감과 소통을 통한 즐거운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운동회와 부부, 시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서비스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자활 및 일

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를 운영하고,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을 개원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장애인들에게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 준공을 통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문화공간 확충했으며, 지역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관리와 강화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보급해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4년 드림스타트사업 전국 지자체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올 한해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한해였다"고 밝히며 "2016년에는 한층 더 내실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영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건 기자

포항시 장가계를 만나다

내연산 선일대 전망대 현판식

내연산계곡 선일대 암봉에 전망대가 세워져 새로운 지역의 관광이슈로 등장했다. 진경산수(眞景山水)발원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선일대전망대는 내연산 연산폭포와 관음폭포, 무풍폭포, 비하대, 학소대 등과 함께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지난 6월초순부터 해발 298m 암봉에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전통 8각정자(가로, 세로, 높이 각각 8m)로 지어졌다.

28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이철구 포항시의회 시의장과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정식 개방됐으며, 이날부터 내연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탐승코스로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일대는 '신선이 학을 타고 비하대(飛下臺)에 내려와 삼용추(三龍湫)를 완성한 후 이곳 선일대에 올라와 오랜 세월을 보냈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조선말엽 영조(英祖)9년인 1733년 봄부터 1735년 5월까지 청하현감을 지낸 겸재(謙齋) 정선(鄭善)이 이곳 일대를 내연산삼용추도, 내연산폭포도, 고사리송관란도 등 그림을 남겨 진경산수(眞景山水) 화풍을 완성시킨 곳이기도 하다.

내연산은 계곡깊이가 14km에 이르고 상생폭포를 시작으로 삼보폭, 보현폭, 잠룡폭, 무풍폭, 관음폭, 연산폭 순으로 이어지는 12폭포와 울창한 자연림과 암봉 등이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연간 6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관광명소로, 중국의 대표적인 여행지이자 수려한 대자연 경관을 갖춘 장가계에 비할 정도로 절경을 자랑한다.

한편 포항시는 보경사에서부터 연산폭포까지 2.7km구간에 탐방로 정비와 쉼터, 포토존, 겸재선생 작품전시대 설치 등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동 기자

영덕군

盈德

21세기 동해안시대 최고의 관광휴양지

으로 오십시오!

사랑해요 영덕

LOHAS

경북

광역시보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7

‘소통의 밥’ 퍼주는 백선거 칠곡군수

지난 24일 백선거 칠곡군수는 군청 구내식당에서 부군수, 국장들과 함께 직원들을 위한 배식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

해 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2016년 새해에도 든든한 밥심으로 더욱 활기차게 군정을 추진해 나가자는 의미로 마련됐다. 또한 칠곡군 한우 협회에서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고기를

기증해 더욱 더 풍성한 먹거리 제공으로 인심과 정이 오가는 훈훈한 시간이었다. 이날 백선거 칠곡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평소 딱딱한 사무실을 벗어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밥을 퍼주며 덕담을 하는 등 직원들과 소소한 마음까지 함께 나누며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의 자리가 됐다. 이은진 기자



경산 영천 청도 칠곡 고령 성주



김명석 영천시장은 29일 오후 시청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영천시체육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29일 오전 경산컨벤션웨딩에서 열리는 '한국농아인협회 경산지부 창립20주년 기념 개최식'에 참석한다.

(주)한마음산업, 광명건설(주) 고령군 교육발전기금 기탁



(주)한마음산업과 광명건설(주)은 지난 24일 고령군청을 방문, 지역교육과 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교육발전기금 500만원과 사랑의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영식 대표는 "지역명품교육 조성을 위한 기금 모금에 동참하고자 늘 생각해 왔고, 더 나은 지역교육 환경과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 기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양수 기자

영천시, 여성자원봉사단 정기총회·워크숍 가져

영천시는 지난 24일 교육문화센터에서 여성자원봉사단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년 동안 여성자원봉사단을 이끌어온 신규연 부회장이 공로패를 수상했고 2016년 임원으로 조미경 회장과 신규연 부회장이 재선출됐다.

교육문화센터 시민사회교육 수료생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여성자원봉사단은 말발찬봉사, 제과·제빵봉사, 이·미용봉사, 노래봉사 등 7개 분야에 총 100여명의 회원들이 독거노인세대,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일만 기자

청도소싸움경기 최강전 진정한 왕좌 가렸다

갑종 '복두', 을종 '범이'

병종 '악돌이' 우승

2016시즌 1월9일 오전 개장

2015년 청도소싸움이 최강전을 끝으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을 기약했다. 올해 최강전이 이전과 다른 점은 성적에 따라 선발된 4두의 싸움소들이 진정한 왕좌를 가렸다는 점이다.

이번에 우승한 싸움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갑종체급은 '복두', 을종체급은 '범이', 병종체급은 '악돌이'가 우승했으며, 특히 각각 9전승과 11전승이라는 승률 100%의 '백머리'와 '봄'의 신화가 '범이'와 '악돌이'에 의해 깨졌다는 것은 한층 의미가 깊다. 이를 보면 소싸움판에서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

상대전적과 준결승에서 싸운 기록을 볼 때 '범이'와 '악돌이'의 열세가 예상됐으나 이를 보기 좋게 뒤집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 이날 청도소싸움경기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환호와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2016년에는 이들 싸움소들이 어떤 기술과

능력으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을지 모두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외에도 지난 26, 27일 양일간 치러진 준결승전과 일반경기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연출돼 관람객들을 매료시키는 기에 충분했다. 2015년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10대 박문상 사장 취임과 동시에 공격적이며 창의적인 홍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왕발통을 활용한 이색홍보로 지역 축제 등 사람이 몰리는 장소는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홍보활동과 지역 단체와의 긴밀한 관계 개선을 통한 청도소싸움경기 사업의 홍보로 연계효과를 이뤄냈다. 그 결과로 취임 후 단 2개월 만에 회차 6억 달성 및 2015년도 경기장 방문객 65만명 유치 등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

또한 청도공영사업공사는 2016년을 '자립경영 원년의 해'를 목표로 싸움소 상급 사감과 임직원들의 각종 수당 반납 및 운영 경비 절감 등 자발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청도의 유일한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해 정상적인 경영을 이뤄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승을 청도군수는 "청도소싸움경기장은 매출과 관광객수 등 모든 면에서 청도를 대표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났다"며 "특히 경기장을 중심으로 용암온천, 와인터널, 프로방스 빛축제장 등과 연계된 주말 상권 활성화의 발원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경제 활



성화 및 고용창출에 중심적인 주춧돌로 우뚝 섰다"고 말했다.

박문상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은 "올 한해 청도소싸움을 사랑해 주신 관람객 및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내년에는 진일보된 모습으로 올해를 뛰어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 번 올 한해 청도소싸움경기를 위해 애써주신 우주(牛主)를 비롯한 조교사, 심판, 방송 등과 그 외 이승을 청도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제 청도소싸움경기장은 최강전을 끝으로 2주의 휴식기를 갖는다. 내년엔 1월 9일부터 경기가 시작되고 12월 25일까지 102일 51회 1224경기가 열리게 된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매주 토요일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소싸움경기의 저변확대가 이룩돼 차별화된 레저문화로 완전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여지며, 박진감 넘치고 역동적인 문화의 한 장르로 우뚝 서 관람객들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용규 기자

경산시, 꿀밤산 산책로 조성

중앙동 꿀밤산에 산책로
자연을 품은 휴식처 제공

경산시 중심부의 꿀밤산에, 경산향교와 경산실내체육관 등 주변 경관을 여유롭게 즐기며 걸음 걸음마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산책로가 생겼다.



경산시는 도심속의 남매근린공원내 (구)배수지 일원의 꿀밤산에 산책로를 조성,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마을행사 활동공간과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 및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꿀밤산 산책로 구간은 (구)배수지 공간을 활용 하자는 주민의견과 마을인근에 휴식공간과 산책로가 필요하다는 주민요청 사항을 적극 수렴, 4개구간 총 L=0.6km 산책로에 토사유출을 막고 보행안전을 위한 식생매트 및 흙막이·로프난간, 급경사지에 데크 및 침목계단 등을 설치함으로써, 흉물로 방치된 노후 웬스, 쓰레기, 급경사지 자생수목 등으로 단절되고 훼손돼 전경 조망이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던 마을인근 산길에 주민들의 자연 휴식처이자 지친 몸과 마음의 쉼터로 변모했다.

경산시는 올해 시비 1억5000만원 예산 투입으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쉼터 등 조성을 위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시비 10억원 예산으로 우선 매입 했으며, 2016년에는 2억원 예산을 확보, 내년 6월까지 쉼터부지 및 산책로에 편익휴게시설·운동시설·안내판·관목류·잔디 설치·식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영운 기자

경산시행정동우회, 100만원 경산시장학회에 기탁



경산시행정동우회(회장 김무희)는 지난 24일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의 장학기금을 경산시장학회에 기탁했다.

김무희 회장은 "지역 학생들을 위해 작게나마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다행스럽고 좋은 일로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기탁하는 입장에서 무척 뿌듯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산시 전직 공무원 모임인 경산시행정동우회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환경정화활동 등에도 솔선하는 등 매년 여러 분야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해오고 있다. 신영운 기자

영천시, 시민과 함께하는 그린환경센터 운영시간 개선

오전 8-11시 1시간 연장 운영

영천시그린환경센터는 시민들의 원활한 폐기물 반입과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오는 1월 1일부터 운영방법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해 일부 변경,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그린환경센터가 설치 운영된 2004년 이후 10여년 만의 변경이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존의 오전 8-10시, 오후 3-5시까지 운영하던 폐기물반입시간을 오전 8-11시로 1시간을 연장, 운영하며 오후는 3-5시까지 변동 없이 운영한다.

공휴일, 일요일에 시행하던 휴무일에 대해서도 토요일을 추가, 휴무일로 지정했다.

시는 반입시간 연장으로 차량을 이용해 생활쓰레기를 반입하는 시민들의 폐기물처리 및 안전한 차량운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토요일 집중적으로 반입되던 생활쓰레기 등은 휴무실시로 인해 반입이 통제되고, 주말 그린환경센터 등산로 및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일만 기자

화랑정신과 새마을운동의 발상지! 청도

청도 반시

씨어는 감!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가공상품

강원김, 뽕건시, 김원인, 만시호정음, 아이스홍시

청도군
유령당 054370-6271
www.cheongdo.go.kr

경북

광역일보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8

구미 김천
문경 상주
군위 의성

상주시, 전국 최고의 환경기초시설로 거듭나

연간 1억원 예산절감과
7억원 경영수입효과 창출

상주시 축산환경사업소가 2015년 한해 가

축분뇨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로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모범 환경기초시설로 거듭나고 있다.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지난 3월에 준공된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은 연간 6000여톤의 양돈분뇨 슬러지를 퇴비로 만들어 지역농가에 공급, 경영수익을 창출했다. 올해 3517톤(6억2000만원 상당)의 퇴비를 생산해 3304농가에 무상공급,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했다.

특히 상주시 관내 돼지사육농가 60호에서 배출되는 양돈분뇨 4만2000톤을 액상부식공법으로 처리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공정관리와 수질관리를 통해 방류수에 대한 주민신뢰는 물론,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했다.

오재영 기자

구미시, 한국문화 체험하고 글로벌 우정 쌓아요

국제자매우호도시 청소년 73명
구미 홈스테이·문화탐방 실시

구미시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국제자매우호도시 청소년 73명을 초청, 2박 3일간 구미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국제자매우호도시 청소년 홈스테이에는 장사시 12명, 광안시 8명, 위남시 26명, 종리구 27명 모두 73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구미가정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학생들과 형제자매의 우정을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 날인 24일에는 구미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국제자매우호도시 홈스테이 참가 학생과 구미호스트 학생 및 학부모 등 200명이 참석해 홈스테이 결연식을 가졌다.

이들과 결연한 구미호스트 학생들은 같은

학년, 같은 성별로 1대 1결연을 한 뒤 구미 가족의 일원이 돼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번에 참여한 구미학교는 경북도구미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은 인동고등학교, 인동중학교, 상모중학교 3개 학교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환영 인사말을 통해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구미시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며, 세계는 아는 것만큼 보이고, 노력하는 것만큼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격려하고, “홈스테이를 통해 국제화 안목과 글로벌 지식을 높여 세계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홈스테이 결연에 공로가 많은 인동고등학교 류장식 교장, 인동중학교 이성희 교장, 상모중학교 장병철 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25일에는 홈스테이 참가 학생과 구미호스트 학생, 풍역도우미 등 150명이 구미와 부산에서 현장체험의 시간을 마치고 호텔 금오산



에서 구미, 장사, 광안, 위남, 종리 5개 도시 학생들이 함께하는 국제청소년 어울마당이 펼쳐졌다.

한국, 중국, 대만 청소년들은 축하공연, 장기자랑, 즉석게임 등으로 국경을 초월한 친목의 축제 무대를 통해 더욱 돈독한 우정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국제 자매우호도시 청소년들이 문화적 이해와 국가 간 청소년 교류의 장을 열어 세계로 향하는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하고, “2016년에는 구미시 청소년들이 자매우호도시를 방문, 구미에서 추진한 동일한 조건의 홈스테이를 통해 자매도시 상호간의 우호협력이 자연스럽게 2세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진 기자



고유환 문경시장은 29일 시립문경요양병원에서 열리는 시립문경요양병원 개원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29일 오전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리는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총회'에 참석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9일 의성축협회의실에서 열리는 한우산업 발전협의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김영만 군위군수 29일 k-마트 앞에서 경북자연사랑연합회 군위지회 선전지 견학에 참가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문경시 공직자 청렴 교육

문경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900여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15년도 문경시 공직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2015년도 청렴도 조사결과 발표,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동영상 '청렴도1등의 비밀'을 상영하고 마지막으로 2016년도 새로 도입예정인 민원인만족시스템에 대한 설명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서 청렴 및 부패방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한편 청렴교육 동영상 상영, 청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됐다.

고유환 문경시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무원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관리자와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시민의 봉사자인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기 위해 청렴마인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재영 기자



상주 국민신문고 '전국 우수자치단체' 선정



시민 입장에서 시민 제안 채택 실시

상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된 2015년도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에서 역사시지의 행정구현으로 열린시정을 펼치는

전국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상주시는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높이고 국민신문고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국민 소통의 장인 국민신문고 제안과제에 대

해 수요자(시민) 입장에서 시민들의 제안을 채택·실시했으며 민원마일리지 등을 연계해 처리기간을 단축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했다. 또한 시민공개토론회와 각종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정책참여 창구의 다양화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이밖에도 상주시는 수요자, 시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선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2015년 경북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경북도에서 시행한 '2015년 무한상상 경북발전' 다수제안 시군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시정추진의 최우선 과제인 시민들과의 '소통'과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내년도도 고충 및 애로사항 해결에 목표를 두고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 통로를 다양화해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뛰는 화합상주'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재영 기자

의성 단촌·점곡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행

미천 수질오염방지 주민보전 향상

의성군은 단촌면과 점곡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정화처리해 하천(미천)에 맑고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단촌·점곡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촌·점곡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

비 230억원으로 국비 161억원, 지방비 69억원을 투입, 단촌면 세촌리 일원에 하루 처리량 36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하수관로 27.7km, 개인하수처리시설 961개소를 설치한다.

이번에 건설하는 하수처리장은 과거 지상에 노출돼 악취와 소음으로 혐오시설로 인식

돼 오던 이미지를 탈피해 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 악취와 소음을 최소화 했으며 지상건축물은 현대화해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건축물로 설계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단촌·점곡하수처리시설은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단촌면과 점곡면의 발생하수 50% 정도를 처리하게 돼 인근 하천인 미천의 수질개선과 정화조 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 경북도 여성단체 사업평가회 우수상 수상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원순)는 지난 23일 구미 금호호텔에서 개최된 '2015년 경북도 여성단체 사업평가회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시상은 경북도 여성단체 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중 바자회 물품 판매수익을 많이 거두고,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도모에 적극 노력한 단체에 수여하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협의회는 올해 바자회 물품 판매수익금으로 문경시 세계군인체육대회 기금으로 기탁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하기 사업을 통해 그동안 고향의 부모님을 뵙지 못한 다문화가족 27가정에 항공권을 지원해 상봉의 기쁨을 선사하기도 했으며, 매년 장애인복지회관 방문객들에게 떡국을 제공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전개, 다른 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는 매년 여성신년교례회,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김치만들기 체험행사 등 다양한 사업발굴 및 추진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과 건강한 사회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원순 회장은 “우리 여성단체회원들이 함께 지원해 주신 덕분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화합과 행복의 문경시가 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영 기자



천혜의 자연과 숨결이 깃든 녹색관광도시 김천으로 오세요

김천은 황악산 직지사, 정암사, 수도산 자연휴양림, 부항림 오도캠핑장 등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관광자원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Central Gimcheon

www.gimcheon.go.kr

직지사



정암사



수도산 자연휴양림



부항림 오도캠핑장



경북

광역시도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9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청송 영양



장국현 영주시장은 2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는 '경북북부권 유교문화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29일 예천군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농업기술센터 소장 퇴임식'에 참석한다.



박노옥 봉화군수는 29일 봉화군청 군수실에서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협약식'에 참석한다.



권명택 영양군수는 29일 석보면 택전리 마을회관에서 개최되는 '찾아가는 군수실-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한다.

봉화군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개최 봉화군새마을회

봉화군새마을회(회장 김창돈)는 28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봉화군 남녀새마을지도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봉화군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내빈소개, 국민의례, 2015봉화군새마을운동 성과영상보고, 시상(군수표창 및 정부포상전수, 종합평가시상, 지회장표창), 대회사, 격려사, 축사, 새마을노래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상에는 행정자치부장관표창은 상운면새마을협의회장 임영운, 봉화읍새마을부녀회장 금순남씨가 수상했으며, 그 밖에 국회의원표창 6명, 도지사표창 3명, 군수표창 5명, 중앙회장표창 1명, 도새마을회회장단표창 6명, 지회장표창 13명 등 총 34명이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부문에서는 명호면새마을회가 최우수상을, 우수상은 법전면, 장려상은 춘양면, 재산면이 받았다. 한편 소천면은 노력상을 수상했다.

김창돈 봉화군새마을회 회장은 "이번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를 통해 한 해 동안 일선 새마을현장에서 활발을 펼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내년 도에는 더욱 발전하는 봉화군 새마을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상기 기자

영양군, 동절기 대비 전통시장 화재안전 캠페인

영양군에서는 28일 영양전통시장 및 주변 상점가에서 동절기 대비 화재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군정직원들을 비롯해

영양경찰서, 영양119안전센터, 영양시장상인회 회원 및 시장 상인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영양시장상인회 및 상점가 회원들을 상대

로 소회기 설치 및 사용요령에 대해서 교육했으며,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사항 및 화재예방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공단 기획팀)에서는 캠페인 현장에서 소화기5대를 기증해 동절기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했다. 김용구 기자



영주농업의 혁신, 지금부터 시작한다

영주농업 혁신을 위해 사과 인삼, 한우인들 하나로 뭉쳐

영주시는 민선 6기 시정방침인 '희망 주는 부자농업'을 실현하고, FTA, TTP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우리 지역 대표 농산물인 사과, 인삼, 한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에서 가공, 유통, 판매의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러가지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지금이 바로 영주 농업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혁신추진단을 구

성, 지난 21-23일까지 품목별로 발대식을 갖게 됐다.

영주사과는 전국최대생산량을 자랑하지만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색도가 떨어지고, 80여개의 작목반이 난립, 품질관리와 브랜드인지도 제고에 한계를 노출했다. 따라서 영주사과 혁신추진단은 저평가된 영주 사과의 명성을 되찾고자 학계, 생산자단체, 연구회, 독농가 등 4개 분과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주요역할은 영주 사과산업과 관련된 종묘, 생산기술, 생산시설, 유통, 홍보, 브랜드 가공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혁신과제 발굴, 중요사항의 심의·자문 및 추진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로부터 영주 풍기인삼은 사람을 살리는 산으로 알려져 있는 소백산을 배경으로 청정 자연환경에서 뛰어난 재배기술과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생산돼 타 지역인삼에 비해 조직이 단단하고 사포닌함량이 매우 높아 오래전부터 가치와 효능을 인정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지인삼이 풍기인삼으로 둔갑 판매 되는 등 풍기인삼의 명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풍기인삼 혁신추진단에서는 각 분야별 도출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분과별 혁신과제 발굴 및 반영으로 인삼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전상기 기자



청송군 경북도 산림행정 평가 '최우수상' 수상

지난해 우수상에 이은 성과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없어

청송군이 올해 경상북도 산림행정 평가 결

과에서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2015년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체 면적의 80%정도가 산림인 청송군은 2200여ha에 대해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병해충 방제에 나서, 읍들이 아직 한 그루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입지 않았다.

또 장난기 유아숲체험장 등 어린이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춰, 3년 연속 도내 산림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 기반조성, 산림휴양 공간제공 등 군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녹색복지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도청신도시 예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청신도시 예천지역 아파트 첫 입주 환영행사

예천군은 28일 도청신도시 내 예천지역 아파트 첫 입주가 시작 됨에 새롭게 입주하는 주민들이 예천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첫 입주자를 위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첫 입주자 환영행사는 이현준 예천군수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주, 호명면주민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꽃다발 전달, 축하떡케익 절단 및 주민등록전입신고,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현판식(문패달기)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예천군에서는 주민등록 전입 등 입주 초기 불편사항을 즉시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해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예천군청 이동민원실을 설치해 찾아가는 행정, 주민편의를 염두에 둔 행정을 실천해 입주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현준 군수는 "1960대 중반이후 매년 줄어들던 예천군 인구가 실로 50년만에 증가하는 기적을 이루고 있으며, 도청이전지가 결정될 때만 해도 반신반의 하던 신도시 조성이 드디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어 상전벽해라는 말이 실감난다"며 "5만 군민이 온 정성을 담아 진심어린 마음으로 새로운 군인이 됨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 예천군이 명실상부한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하는 예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황원식 기자

안동시, 제3회 사랑과 봉사 이미지展

병원의 다양한 일상을 사진에 담아 전시하는 '사랑과 봉사 이미지展'이 이달 30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옛새간 안동북주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사진전에는 안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사진가 10여명이 지난 가을부터 인택의료재단의 안동북주요양병원·예천경도병원을 드나들며 촬영·스캐치한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사진전을 주관하는 안동문화사진연구소는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과 이들을 보살피는 의료인들의 깊은 교감과 소소한 일상의 감정을 전문사진가가 아닌 아마추어만의 진솔한 시선으로 사진에 담았다.

북주병원 신현수 대표원장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의 위안이 되고자 작은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관을 부탁했다.

안동문화사진연구소 강병두 사진가는 "모두 직업이 가진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자투리 시간을 쪼개 어렵게 촬영한 사진을 모았다"라며 "결과와 좋고 나쁨을 떠나 사진을 찍으며 환우들과 교감했던 시간이 바로 '사랑과 봉사'를 알아가는 과정"이라 말했다.

안동문화사진연구소 강병두 사진가(총괄기획)의 필두로 연구원들인 김경숙·김태성·권달우·권영순·류덕우·손병현·정운홍·신성순·천왕성·황상현 씨가 사진을 촬영했고 이창조 화가가 재능기부로 그림을 그렸다.

김용구 기자

영양군 서부2리 마을회와 할머니경로당, 성금 전달

박노진 영양군 서부2리장과 나화솔 할머니경로당회장은 각각 마을회와 할머니들을 대표해 28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정의 성금 20만 원과 10만 원 을, 영양읍파출소 임직원들에게 라면 2박스 와 박스 1박스를 전달했다.

서부2리 마을회와 서부2리 할머니경로당은 연말연시 송년회 및 신년모임 등으로 읍주 운전과 각종 사고·범죄 예방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영양파출소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추운 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활동에 애쓰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나화솔 서부2리 할머니경로당 회장은 "영양군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영양파출소 임직원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이다. 또한 할머니들이 심시일만 모은 성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창재 기자





새로운 영양

The New Yeongyang



음식덕비방



HOT 페스티벌



국립중복원센터

자연친화적 녹색성장,
인문학 중심의 인간친화적 융복합산업도시로
나아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맛의 경험, 새로운 멋의 체험에
이름다운 동행을 ...
정(情)은 느끼고 휴식이 필요하시면
영양군의 선택은 필수입니다. !!



신년축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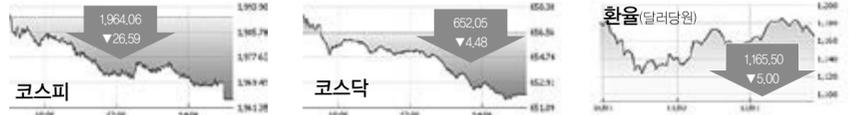


지훈예술제



영양풍력발전소

http://www.yyg.go.kr



올해 아파트 전세가 6.11% 상승

전세가을 사상 최고치 경신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6.1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12월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은행이 28일 발표한 '2015년12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 조사'를 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년(4.36%)보다 1.74%포인트 높은 6.11%로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12.49%), 영등포구(12.31%), 대구 수성구(12.20%), 경기 하남(11.98%), 서울 강서구(11.95%) 등이 10%를 초과하는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5.06%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2.43%)보다 2.63%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달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달보다 0.3%포인트 상승, 처음으로 74.0%에 진입했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4년 12월 70.0%대를 기록한 이후 계속 상승하며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전세가율 80%대를 돌파한 성북구(82.6%), 강서구(80.1%) 2개구 외에 동작구(79.9%), 구로구(79.0%), 성동구(78.1%) 등도 80%대에 근접하는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시장의 비수기인 연말임에도 수도권 전세 매물 부족 및 가격상승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세가율 70~80%대 형성으로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차라리 매매로 돌아서겠다며 문의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현 기자

“동대구역 주변, 대구의 랜드마크 될 것”

동대구역 고가교·성동고가차도 공사 순조롭게 진행



대구시 동대구역 주변이 도심재생을 통한 '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동대구역 앞 기존교량을 철거하고 왕복10차로로 확장하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공사는 565m의 교량으로 사업비 1449억원을 투입, 2011년 8월에 착수해 현재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 동대구역을 횡단해 동부정류장과 큰고개오거리를 연결하는 647m 규모의 성동고가차도 건설은 2009년 6월부터 7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현재 70%로 진척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동대구역 고가교의 노후 된 기존교량 철거를 완료하고 신설 교량 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성동고가차도는 연말쯤 개통될 예정으로 동대구역 주변의

교통여건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동대구역 광장은 7만1303㎡로 확장되고 '맑은 경관 푸른 물이 있는 대구의 새마당'이라는 의미의 탁 트인 광장공원이 조성되면서 대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건설본부 채승규 토목부장은 "동대구역 주변의 교통여건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공사'와 '성동고가차도 건설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내년에 준공 예정인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유현 기자

대구 노사민정 “노사평화도시 만들기에 앞장선다”

노사화합의 한마당 개최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29일 달서구 호산동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사 화합의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엔 권영진 대구시장, 김위상 한국노총대구본부의장, 박상희 대구경영자총연합회장 등 25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 동영영상영, '노사협력도시 대구만들기 유공자' 표창 등 식순에 의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대구 노사민정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참여 공감을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전국 최고 수준의 노사상생 협력 분위기를 기반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국내외기업 투자유치에도 주력한다.

그동안 대구 노사민정은 2013년 찾아가는 노사협력도시 대구 만들기 설명회 개최, 찬학기업 인증사업 실시 등 다양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대구를 만들는데 대구노사민정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근로자 및 사용자대표, 지역 언론사와 시민대표, 고용·노동·경제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노사안정 및 협력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다.

자유현 기자

새해 처음 열리는 '대구웨딩박람회' 구경오세요

대구웨딩세이에서 개최



대구시에서 내년시즌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랑, 신부가 많이 기다렸을 대구웨딩박람회 일정이 2016년 1월1일부터 3일까지 대구웨딩세이 박람회장(대봉동 25-13 영진빌딩 2F)에서 개최한다.

대구웨딩박람회에서는 국내, 국외 최고 브랜드의 웨딩드레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와, 예비 신랑, 신부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 있는 포토타임, 화보에서 보고 꿈꾸던 메이크업을 시연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어 방문을 하시는 예비 신랑, 신부가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웨딩박람회는 많은 스토리의 종류와 저렴한 가격대, 또한 스튜디오 메이크업과 웨딩드레스 무료체험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결혼과정과 결혼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여러 가지 혜택을 예비부부들에게 제공해 결혼 준비에 대한 궁금증 해소뿐만 아니라 대구결혼식장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박람회에는 인증된 대구 웨딩업체 섭외로 합리적인 웨딩 패키지 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업체마다 상담사 다양한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혜택으로 예비신랑신부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진짜웨딩박람회 관계자는 "대구웨딩샵, 대구웨딩홀이 준비한 혜택 외에도 웨딩세이에서 제공하는 가장 큰 박람

회 이벤트혜택이 있다"며 "계약상황에 따라 대구예식장 대관료할인, 대구웨딩스튜디오, 백화점상품권, 스킨케어권, 피트니스 할인 등 파격적인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진짜'라는 타이틀을 내건 '2016 진짜웨딩박람회'는 올해 다양하게 열린 웨딩박람회 중에서도 차별화된 진짜 혜택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개최된다. 참가업체들은 "웨딩플래너의 경험을 살려 예비신랑, 신부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진짜 저렴한', '진짜 다른', '진짜 다양한' 박람회로 신년 초 1월에 처음 진행되는 웨딩박람회를 진행해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1:1 웨딩 전문가와 무료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대구 결혼웨딩박람회의 사진신청은 웨딩세이 박람회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진 접수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유현 기자



“이제는 간식도 복고열풍 따라”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28일 지하2층 프랑가스트 매장에서 복고 열풍에 따라 요즘 가장

인기를 누리는 간식, 단팻빵과 소보루빵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인기와 함께 그 시절 인기를 누렸던

간식이 고객들의 향수를 자극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팻빵을 비롯해 크립빵, 파베기, 팥빵 등 추억의 간식들이 다양하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자유현 기자

대구도시철도공사, 2015년 조달이용 우수기관 포상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조달청장으로부터 '2015년 조달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8일 우수기관 트로피 및 소속 직원(김승면)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올해 조달서비스 이용실적(지난달 말 기준 실적금액 478억원, 전년 대비 821% 증가)이 우수하고, 조달수의 신장율이 높으면서도 계약관련 비리가 없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김영식 기자

서문시장에 공공 와이파이존 구축

전통시장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NIA)은 미래창조과학부, 대구광역시, 이동통신사업자(KT)와 공동으로 구축한 대구 서문시장 공공 와이파이 구축 개통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서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지역·계층 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전통시장, 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에 2017년까지 전국 1만2000개소에 무선인터넷존(공공 와이파이)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달까지 대구 서문시장에 총 80개의 공유기를 설치해 전국 최대 규모의 공공와이파이 존을 조성했다.

서문시장 입구, 만남의 광장, 시장거리리를 비롯해 4개 상가 건물 내에서 공공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재호 정보화진흥원 본부장은 "공공와이파이는 전통시장에 방문하는 서민과 시장상인들에게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제공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모하고 따뜻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현 기자

신입 90% 지역인재 채용, 한샘의 대구경북 사랑

2013년 이후 2배 이상 늘려 일자리 창출 대통령 표창

2013년 12월 대구지역 한샘IK(인테리어키친) 대리점에 입사한 영업관리직원 조재선(27)씨는 인테리어 전문업체에 한샘 제품을 공급하는 일을 맡고 있다.

대구 출신으로 입사 2년 만에 성과급 포함 연봉 9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조씨는 "대구의 지리와 인테리어 트렌드를 잘 알고, 업체 대표들이 고향 동생, 조카처럼 친근하게 대해 업무 실적을 늘릴 수 있었다. 불철 기에도 대규모 기업에 입사해 고향에서 일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했다.

종합 홈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2013년 이후 대구경북지역 출신 직원을 기존의 2배 이상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샘은 지난 8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한샘플래그십을 열면서 사무직·영업직·지원직·관리직 등 170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들 중 90%가 대구경북 출신이다. 한샘 관계자는 "다른 10% 사원은 서울 출

신으로 오픈 초기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한시적으로 근무한다. 내년 하반기 이후 지역 출신자를 추가 채용해 플래그십 사원 대부분을 대구경북 출신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샘은 지역 내 여러 영역에서 지역민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말 기준 대구경북 한샘부대대리점과 한샘인테리어대리점 30여 개 매장, 시공협력사인 한샘서비스원 등에서 모두 765명의 지역 출신 사원이 근무 중이다. 2013년(241명) 대비 217%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대구경북 대리점을 늘린 한샘이 지역 인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데서 비롯됐다. 한샘은 2012년 이후 매년 30%의 매출 성장을 하며 고용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이 기간 전국의 직접 및 간접 고용을 각각 950명, 2천100명 늘렸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563명의 계약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한샘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15 일자리 창출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영식 기자

파타고니아, 대구 동성로점 오픈

파타고니아코리아(대표 조용노 www.patagonia.co.kr)가 지난 24일 대구 동성로에 신규 매장을 오픈했다.

이번에 오픈한 '파타고니아' 대구 동성로점은 젊음의 거리로 불리는 동성로 지역 특성과 주요 소비 연령층을 고려해 '스포츠웨어' 카테고리 중심으로 전개한다. '파타고니아' 측은 특유의 실용한 디자인과 세련된 색상, 뛰어난 기능성 등을 자랑하는 스포츠웨어 카테고리 대구 동성로점을 방문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구 동성로점 신규 오픈도 환경을 위해 불필요한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브랜드 철칙을 고수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위치하고 있던 화장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집기나 매장 디스플레이 등을 최대한 재활용해 '파타고니아' 대구 동성로 매장만의 독특한 매장 콘셉트를 완성했다.

특히 카페를 개조해 만든 강남점, 창고를 개조한 양양점 등에 이어 화장품 매장을 리모델링한 대구 동성로점은 타 매장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매력과 높은 완성도로 동성로 지역의 랜드마크 자리를 엿보고 있다.

최우혁 파타고니아코리아 부장은 "파타고니아는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하는 브랜드 철학의 일환으로 신규 매장 오픈 또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검토하며, 필요에 의한 소비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구 지역 소비자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오랜 검토 끝에 오픈하게 된 파타고니아 대구 동성로점은 친환경 아웃도어 라이프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현 기자



경북교육청, 내년 2월 15일부터 이전 계획



경북교육청은 내년 2월 15일부터 27일까지 안동 신청사(사진)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설 연휴가 끝나면 부서별 이사 일정에 따라 2월15일 총무과를 시작으로 2월27일까지 12일에 걸쳐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사 물량은 5톤 트럭 187대 분량으로 추정되며, 비용은 2억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경북교육청은 이전 일정을 결정하는데 있어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주여건과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경북도청 및 도의회의 이전 일정과 북부지역의 기상여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이영우 교육감은 “병신년(丙申年)의 신학기에 맞춰 신규교육청 시대를 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명품 경북교육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청사 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신청사는 지난 7월31일자로 준공했고, 8월부터 종합방재센터를 운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집기구입과 내부 환경조성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사용역 업체도 경쟁입찰로 선정, 착실히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지우현 기자

경북교육청, 감사 통해 숨은 일꾼 발굴 표창

숨은 우수공무원 10명 표창

경북교육청은 각종 감사과정에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숨은 우수공무원 10명을 발굴 표창한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 공직 청렴 및 해당분야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교직원 등이며, 각종 감사에서 발굴해 업장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했다. 금년 상반기에는 12명을 표창한 바 있다.

수상자 명단은 최성호(영양교육지원청), 이숙희(의성공업고등학교), 이상화(구미정보고등학교), 이은숙(영인중학교), 이종일(수륜중학교), 김인철(안동진명학교), 김석중(영주교육지원청), 여원규(가은중학교), 이영주(북상고등학교), 정성희(세명고등학교) 등 모두 10명이다.

이들 중, 의성공업고등학교 행정실무원 이숙희(여, 36)는 세입담당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수업료가 미납된 학부모에게 수업료를 포함한 각종 납입금에 대한 감면과 지원 절차에 대해 수시 상담, SMS 등 소통 및 공감을 통한 세입업무 추진으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였고, 또한 불납결손 및 미수납률 1%이하를 달성하는 등 교육예산의 안정적 운영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우수공무원 시상, 감사공무원들이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각종 감사를 실시하면서 경북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직자들을 직접 발굴해 시상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를 계기로 향후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

이영우 교육감은 “감사에서 잘못을 지적해 빠르게 고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숨은 일꾼을 찾아내어 표창함으로써 건전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수 공무원을 많이 발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우현 기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맞춤형 복지 실현

경북교육청, 체육건강과 교육정책 설명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28일 도교육청 본관 2층 제3회의실에서 분청 출입 기자를 초청, ‘체육건강과 교육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종모 체육건강과장은 2015년 체육건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 보건, 급식지원,

교육복지 업무에 대해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참석된 기자들과 함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체육건강과에서 올해 추진한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실적 △학교 스포츠클럽 및 토요 Sports Day 운영 △학생 건강 증진 강화 △학생 흡연 예방 교육사업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강화 △난치병 학생 지원 △학교 급식 시설 현대화 사

업 △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 △농어촌 전원학교 및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등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함께하는 교육정책의 공감대 형성을 강화했다.

또한 2001년부터 전국 최초로 난치병 학생 돕기 운동을 전개, 현재까지 1138명의 학생에게 90억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6억7000만원의 성금을 모금, 생명 존중의 가치관 확립과 사랑이 넘치는 학교문화 풍토 조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애와 봉사정신을 일깨우고 있다.

지우현 기자



영남대-IPDN대학, 교류협약 체결

인도네시아, 영남대에 새마을 연구센터 설립 지원 요청

영남대학교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새마을연구센터 설립 지원을 요청 받았다.

지난 23일 영남대 노석균 총장은 총장 접견실에서 인도네시아의 공무원사관학교로 불리는 IPDN대학(Institute Governance of Home Affairs) 수라디나타(Ermaya Suradinata) 총장과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대학은 새마을개발 분야 교수 및 학생교류, 상호학점 인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특히 영남대는 IPDN대학 내 새마을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연

구진과 교육연수 콘텐츠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IPDN은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1956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 8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전역 국비 장학생이며, 졸업 후 전원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수라디나타 총장은 4성 장관 출신으로 국방부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IPDN대학 수라디나타 총장과 부총장, 교무처장 일행은 22일부터 24일까지 영남대를 방문한 가운데 58개국 개발도상국이 참여한 비정부기구인 글로벌새마을개발네트워크(GSDN) 최외출 대표(영남대 부총장)와 별도의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라디나타 총장은 GSDN 참여를 약속했다.

신경운 기자



권은혜, 의무기록사 국가고시 전국 수석

대구보건대 보건행정과 3학년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3학년 권은혜(25·여)씨가 제32회 의무기록사 국가고시에서 전국수석을 차지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

가시험원에서 최근 발표한 이번 시험에서 권씨는 230점 만점에 203점을 획득, 4년제 44개교를 포함한 112개 대학에서 응시한 수험생 2763명 중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

권씨의 수석은 병마와 휴학 등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얻은 결과로 더욱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고교를 졸업한 권씨는 4년제 대학에 진학했지만,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는 병을 얻고 적성에도 맞지 않아 2년 만에 자퇴했다. 약으로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운동 등 철저한 자기관리로 1년 만에 완치판정을 받았다. 병원행정에 관심을 갖고 2012년 대구보건대학교에 진학한 권씨는 병에 대한 후유증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없어 3학기 만에 다시 휴학을 했다.

권은혜씨는 “병을 앓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생신분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



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후유증을 극복하고 2학년 2학기에 복학한 권씨는 공부에 매진해서 평점 4.4점(4.5만점)으로 학과 차석, 3학년 1학기에는 4.45점으로 수석을 차지했다. 학교에서 국시를 위해 시행한 모의고사 성적은 5회 연속 1등이었다.

권씨는 “국시 대비는 시험 2개월 전부터 시작했다”며 “준비기간이 남들보다 많이 부족해 시간을 쪼개서 집중하고 학과 국시대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는데 수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대구보건대학교 보건행정과 학과장 이은희(57·여) 교수는 “위낙 성실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해서 수석 기대를 했는데 당연한 결과다”고 말했다.

권씨는 “당장은 병원 원무과에 취업하겠지만 공부하는 즐거움을 이어나간다면 전공 후학을 양성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주 발표한 치과기공사 국시에서 치기공과 3학년 김은진씨가 전국수석을 차지하는 등 2주 연속 보건의료국가고시 수석을 배출했다.

김영식 기자

대구교육청, 대구원격협력학습 사전 설명회 열어

2016년 LT 원격협력학습 도입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2일 시교육청 동관 7층 대회의실에서 2016학년도 대구원격협력학습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전설명회는 교실 현장에서 원격협력학습이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최된 자리로, 초·중·고교원 80여명이 참여했다.

이 날 대구시교육청은 2015학년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해외 학교와의 화상 원격수업인 글로벌 원격협력학습에 이어, LT(Learning Together) 원격협력학습을 선보여 교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LT(Learning Together, 함께 배우는) 원격협력학습은 도·농간, 학급 간 원격협력학습을 통해 협력학습을 교실 밖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학습 형태이다. 지금까지의 단순 화상수

업과 원격수업이 아니라 교실수업개선의 일환으로 대구시교육청이 강조하는 협력학습을 주축으로 해 진행되는 보다 차별화된 원격수업방식이다.

사전 설명회에서 칠성초 윤현철 교사는 ‘2015 초·중·고교 수업발표대회에서 적용한 원격협력학습’을 주제로 LT 원격협력학습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학급 내 협력학습의 한계를 벗어나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에 기반한 원격협력학습을 소개하며, 학급 간 원격협력학습을 통해 다른 학습 환경이 가진 장점을 서로 활용해 보다 의미있고 효과적이 수업을 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달성군에 위치한 동국초등학교 6학년 교실(담임교사 여승현)을 화상 연결해 원격수업 방법을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해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새문초 김국연 교사가 ‘호주 첼시초등학교와의 원격협력학습’을 주제로 2015학

년도에 글로벌 원격협력학습 pilot 수업을 적용하고, 5차례의 수업 공개를 했던 사례를 발표했다. 김 교사는 글로벌 원격협력학습 실시에 필요한 IT 기자재 및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문화이해형과 교육과정기반형 원격협력학습 수업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국연 교사는 “글로벌 원격협력학습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수업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할 수 있게 한 좋은 기회였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 교사와 수업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학생들이 수업 목표 달성을 뛰어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너무나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서정하 초등교육과장은 “2015학년도에 시작된 글로벌 원격협력학습의 효과가 뛰어나 2016학년도에는 참여 학교를 6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새롭게 도입되는 LT 원격협력학습을 통해서 학생 간의 협력학습은 물론 교사간 협력을 통한 교수-학습 설계 능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대구한의대 양백지간푸드테라피 활성화사업단 최종 보고회 개최

대구한의대학교 양백지간푸드테라피활성화사업단은 지난 24일 칠곡 약선원에서 영주, 문경, 봉화지역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과 (사)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 참여업체 대표 등 약30여 명이 참석해 ‘양백지간푸드테라피활성화사업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양백지간푸드테라피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이 사업비를 투자해 양백(태백산, 소백산)지간 내에 있는 3개 지방자치단체(영주, 문경, 봉화)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과 임산물을 기반으로 테라푸드 메뉴를 개발하고 보급해 부가가치 높은 먹거리를 활성화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테라푸드를 확대·보급하고자 하는 지역연계 협력 사업으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종료되는 사업이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지난 3년간 개발된 테라푸드 메뉴 약 30여종과 사업단에서 개발한 2차 상품 중 지역 참여업체에 의해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문경의 오미자흑초와 영주의 장아찌소스 등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신경운 기자

대구교육청, 2016학년도

후기고 입학전형 합격자 발표

대구시교육청은 28일 2016학년도 후기고 입학전형 합격(배정예정)자를 출신 중학교를 통해 발표한다.

합격(배정예정)자는 중학교 내신성적에 의해 학군, 남녀구분 없이 성적순으로 후기고 모집정원만큼 선발하는데, 전체 지원자 2만 2656명 중 2만2197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 가운데 추첨배정고 합격(배정예정)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정원의외 포함해 2만1240명(남 1만435명, 여 1만805명), 선지원일반고(다사고, 달서고, 대구중앙고, 포산고, 현풍고) 합격자는 957명(남 511명, 여 446명)이다.

탈락자는 전기고 및 선지원일반고 신입생 등록 마감 후 모집정원에 미달된 고등학교의 추가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정원미달 학교의 2차 모집은 오는 2016년 1월 18일 공고를 거쳐, 해당 고등학교별로 19~20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21일 전형을 거쳐 22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한편 추첨배정고 합격(배정예정)자에 대한 배정고교는 오는 2016년 2월 4일 오후 2시 출신 중학교와 우리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우현 기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2016학년도 편입생 모집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가 2016학년도 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일반편입 26개 학과 206명, 학사편입 27개 학과 38명, 의료인력 1개 학과 7명, 연계과정 11개 학과 57명 등 총 308명이며, 2016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인터넷(우웨이 www.uwayapply.com)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구본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입학처장은 “동일 모집단위 외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입학 후 첫 학기에 전과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며 “서울캠퍼스 복수전공 및 학점교류제도, 이공계와 예체능계 편입생 특별장학금 등 다양한 학사제도와 혜택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입학처 누리집(http://ipsi.dongguk.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입학관리실(전화:054-770-2031-4)로 하면 된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교육부 ‘잘 가르치는 ACE 대학’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연속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에서 지역 사립대학 전국 8위,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윤용찬 기자

여성 문화

광역시보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12

연예가 소식

나나, 파격 하의실종 패션...
눈부신 각선미 '입은 것 맞아?'



나나의 하의실종 화보가 화제다. 걸그룹 에프터스쿨 나나는 과거 패션 매거진 코스모폴리탄과 진행한 화보에서 섹시미를 발산했다. 공개된 화보 속 나나는 나무 토막 위에 걸터 앉아 각선미를 뽐내고 있다. 마치 옷

을 입은 것 같지 않은 듯한 그의 자세가 남심을 설레게 만든다.

누리꾼들은 "나나, 정말 예쁘다", "나나, 사랑스럽네", "나나, 몸매 대박", "나나, 장난 아니네" 등 반응을 보였다.

미란다커 란제리 화보

속옷이 감당 못할 볼륨감



미란다커가 섹시한 볼륨 몸매를 과시했다. 미란다커는 28일 공개된 2016년 S/S 윈더브라 화보에서 깊게 패인 클리비지 라인과 섹시한 분위기로 매력을 뽐냈다. 그는 촬영장에서도 시종일관 건 강미를 뽐내며 밝은 표정과 예교 넘치는 한국어로 촬영장 분위기를 이끌었다는 후문이다.

엠코르셋 측은 "당당하고 섹시한 이미지의 윈더브라와 어울리는 뮤즈는 역시 미란다커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미란다커는 올해 이어 2016년에도 윈더브라와 함께 당당하고 건강한 여성의 섹시함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윈더브라는 오는 1월 미란다커 패키지 2016을 시작으로 다양한 라인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레인보우 재경 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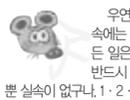
복근 선명한 탄력 몸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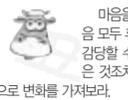
레인보우 재경과 현영이 건강미 넘치는 몸매를 과시했다. 패션 매거진 세씨는 28일 2016년 1월호에 실린 레인보우 재경과 현영의 보디 화보를 공개했다. 재경과 현영은 이번 화보를 통해 아름다운 보디라인을 자랑한 것은 물론 몸매 관리 노하우도 소개했다.

재경과 현영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꾸준히, 건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임모아 말했다. 재경은 일주일에 6번 웨이트와 필라테스, 복싱으로 탄탄한 보디라인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 SNS를 통해 운동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 하고 있는 현영의 경우 매일 2시간 씩 집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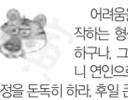
덧붙여 보디라인을 선보인 재경과 현영은 프로피셔셔널한 모습은 물론 특유의 발랄함과 털털함으로 스타들의 찬사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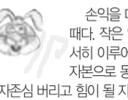
우연한 만남을 주의하라. 겉은 순한 양이지만 속에는 검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때다. 모든 일은 믿는 사람과 의논하며 협력해 이루어야. 반드시 큰 성과 있을 듯. 애정은 복잡하지만 할 뿐 실속이 없구나. 1·2·3월생 동쪽 사람과 함께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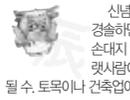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니 몸과 마음 모두 휴식이 필요한 상태. 욕심만 앞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으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마라. 작은 것조차 물거품이 될 듯. 4·5·6월생 빨간색으로 변화를 가져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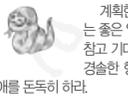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운으로 일을 시작하는 형상이니 모든 것에 서서히 생각이 가득 하구나. 그러한 사람과 재회하는 번가움이 따르니 연인으로 변할 수. 7·8·9월생 친구 간에 우정을 돈독히 하라. 후일 큰 도움의 발판으로 삼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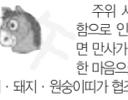
손익을 따지지 말고 진솔한 자세를 갖고 임할 때다. 작은 일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서서히 이루어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자본으로 동업을 하는 것도 좋을 듯. 4·7·10월생 자존심 버리고 힘이 될 자에게 도움 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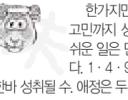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라. 방심하거나 경솔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겠다. 새로운 사업에 손대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 내실을 기하라. 손아랫사람이나 여자의 도움이 있다면 더욱더 호전될 수. 토목이나 건축업이 대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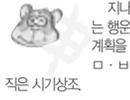
계획한 일을 할 수 없어 답답할지라도 앞으로는 좋은 일이 속출할 듯. 성공함은 금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애정은 연상의 사람과 언연될 수. 경솔한 행동은 금물. 6·8·12월생 형제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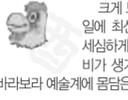
주위 사람에게 귀감이 대상이 되는 건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일임을 알라. 불평만 늘어놓으면 민사가 귀찮고 실수투성이로 변모될 듯. 지분한 마음으로 새 설계를 하면 모든 게 수월해지고 쥐·돼지·원숭이띠가 협조자가 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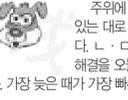
한가지만을 바라보면 시간이 지체돼 뜻밖에 고민까지 생길 듯. 사정을 둘러봐서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먼저 하라. 고심한 문제의 해답도 얻는다. 1·4·9월생 힘을 내라. 협조자가 나타나니 뜻한바 성취될 수. 애정은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는 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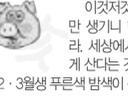
자녀권 과욕만 애·내면 금전적인 소득이 따르는 행운의 날이 되겠다. 북서쪽 사람이 승산 있는 계획을 일러주었으니 기회를 포착함이 좋을 듯. 0·6·8월생 새로운 사업구상은 좋으나 아직은 시기상조.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일보다는 작게 보여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승진에도 도움이 되는 운. 세심하게 모든 걸 신경쓰다보면 하는 일 마다 고비가 생기고 고전을 당하니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라. 예술계에 몸담은 이는 이득 있는 하루다.



주위에 도움을 주는데 인색하지 말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면 원하는 일에 성과가 있겠다. L·O·O생씨는 갈등으로 시간 끌면 일의 해결을 오늘 시작하면 가까운 친구와 귀인 데 줄 듯.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알고 도전하라.



이것저것 흠을 집으면 짐을수록 불안한 마음만 생기기 현 조건에 만족하며 가정에 충실하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평범하다. 세상은 것을 알면 순서 있는 진행도 가능하다. 1·2·3월생 푸른색 밤색이 옷이 낫다.

대구오페라하우스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12월31일 송년음악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지난 1년간 시민들로부터 받은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과 2016년 새해를 향한 희망찬 메시지를 담은 송년음악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다.

대구경북성악가협회(회장 신미경)와 함께 준비한 이번 송년음악회는 지역은 물론 한국 성악을 대표하는 70여명의 성악가들의 참여로 예년보다 더욱 풍성하게 진행된다.

이동신 지휘, 대구국제오페라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진행되는 이번 송년음악회는 마치 오페라 속 파티 장면을 재현한 것과 같은 무대 구성을 통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성악가들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차레표는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베르디) △투란도트(Turandot, 푸치니) △마술피리(Die Zauberflote, 모차르트)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중심으로 어린이 합창, 여성 및 남성 중창까지 다채롭게 구성돼 있어 남녀노소 모든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한다.

당일 휴게실에는 열인양상블, 아르스노바 남성중창단의 미니 음악회가 열려 본격적인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기대를 높인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시민에 대한 사랑과 감사라는 주제에 맞게 짝수로 예매하는 관객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랑패키지'와 '감사패키지'를 운영한다.

전석 1만원의 티켓 가격이 친지, 동료와 함께라면 1인당 5000원으로 더욱 저렴해져, 지난해 송년음악회 당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구성이다.

당일 관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대구오페라하우스 1월 기획공연 카발레리아 루스 타카나&팔리아치 초대권을 비롯한 선물들을 증정한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송년음악회 예매는 대구오페라하우스 전화(053-666-6023) 및 공식 누리집(www.daeguoperahouse.org), 인터파크(1544-1555, ticket.interpark.com)를 통해 가능하다. 최윤희 기자



"스트레스 많고 마른 여성 폐경 빨라"

일찍 폐경 맞으면 비만·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높아

스트레스를 많은 받거나 마른 여성은 폐경을 빨리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찍 폐경을 맞으면 골다공증·비만·심장병·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인하대병원 가정의학과 이연지 교수팀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자료(2010~2012년)를 토대로 40~70세 여성 1941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그룹에 속한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50.17세로 낮은 수준 스트레스 그룹 여성(50.58세)보다 약 5개월 빨랐다.

비만도·생리주기의 규칙성에 따라서도 여성의 자연 폐경 연령이 달랐다.

자신의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가 18.5 미만인 저(低)체중 여성의 폐경 연령은 49.66세로 만 50세

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이 들어서 너무 마르면 폐경이 빠르다는 의미다.

비만 여성(BMI 25 이상)의 평균 폐경 연령이 50.75세로 가장 높았고, 정상 체중 여성(BMI 18.5~25 미만)의 폐경 연령은 50.33세였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했던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51.18세로 생리를 규칙적으로 했던 여성(50.41세)보다 늦었다. 과거 흡연 여부와 경제적 능력 등은 폐경 연령과 이렇다 할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남명섭 기자



2015년의 끝자락, 문예회관이 마련한 감동의 종합세트

2015년 송년음악회

12월30일 저녁 8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30일 저녁 8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아듀2015, 뉴스타트2016!'라는 부제로 '2015송년음악회'를 연다.

공연은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6년을 희망차게 맞이하자는 콘셉트로 전반부는 지역출신의 젊은 스타 연주자들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 연주가, 후반부는 시립예술단의 화려하고 풍성한 하이라이트 모음 공연이 준비돼 있다.

부산시향 트럼펫 수석인 스토티트리 로카렌코프의 가슴 저리는 밤하늘의 트럼펫연주를 시작으로 △대구출신의 차이콥스키 국제콩쿨 바이올린부문 수상자이자 퀸 엘리자베스 국제음악 콩쿨 파이널리스트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타이스의 명상곡, 치고이네르바이젠을 연주한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몸세라 카바예에게 사사받고 현재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조지영'과 이태리와 유럽의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가수로 활발한 활동 중인 바리

톤 '김만수'가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 중, 이중창·입술은 참목하고 등을 선보인다.

지휘에는 경북도향 상임 지휘자인 이동신과 CM코리아 오케스트라가 함께 환상적인 선율의 공연을 준비한다.

후반부는 대구시립예술단의 종합무대로 '시립무용단의 '벽오금화 中, 3색선', 지역대표 성악 앙상블팀 '프리소울'의 내나라 내거레 & Hope in Daegu, '시립국악단' 한국무용단의 창작무용 舞地무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브로드웨이 메들리 곡이 준비돼 있다.

이색적으로 송년음악회에 '시립극단'이 처음으로 참여해 연극 레미제라블의 하이라이트 공연을 선보여 2015년 송년의 밤을 더욱 빛냈다.

최현묵 대구문화예술회관장은 "이번 송년음악회에서는 기존의 음악회 형식을 탈피해 지역의 촉망받는 젊은 연주자들과 시립예술단의 종합무대를 통해 '희망찬 2016년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본 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기획취지를 설명했다.

아듀 2015, 뉴스타트2016! 대구문화예술회관 2015송년음악회는 S석(1층전석)1만원, A석(2층 전석)5000원이며, 공연문의 및 표 예매는 대구문화예술회관 예술기획과(053-606-6133/5)를 통해 가능하다. 임수향 기자

대구시민회관 새 이름 대구콘서트하우스

2016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

2013년 지역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로 재개관한 대구시민회관이 대구콘서트하우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과거 대구를 대표하는 공연장의 모습에서 한국 최고와 콘서트 전용공연장으로 발돋움하고, 그 상표 해외에 알리기 위한 최적의 명칭으로 대구 콘서트 하우스(Daegu Concert House)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역사와 변화, 대구콘서트하우스

1975년 개관, 40년간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 문화공간인 대구시민회관은 대구의 대표적 건축가 김인호(1932-1989) 씨의 유작으로 한국 전통 건축의 부드러운 처마곡선을 형상화한 대구의 대표적 건축물이다.

대구 옛 관문에 위치한 시민회관은 건립 이래 공연문화의 중심역할을 해왔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매년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우천 시 지붕에 누수로 인해 공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다.

새로운 문화 트렌드 수용 등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 2009년 리노베이션을 결정하고 공연문화 도시에 걸맞게 클래식 공연을 개최하기에 최적화 된 콘서트 전용홀로의 변화를 추진, 2011년 부터 3년간 559억 원을 투자, 1284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248석의 소공연장, 교향악단을 위한 전용 연습실을 비롯한 근린시설이 포함된 한국 최고, 국제적 수준의 공연장으로 거듭나게 됐다.

■대한민국 새 공연장의 대명사, 대구콘서트하우스

2013년 11월, '아시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을 성대하게 열었다.

새로운 출발을 알린 대구시민회관은 일본, 대만, 중국의 대표 교향악단과 KBS교향악단, 그리고 전국 광역시의 대표 교향악단들이 방문 공연장의 우수한 음향에 감탄을 거듭 할 만큼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연장의 대명사가 됐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클래식 전용공연장에서 세계 최고의 정통 클래식 공연만을 개최했다.

공연장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기획을 진행해 온 바, 백건우, 정경화, 정명훈, 조수미 등 한국 최고의 연주자들의 독주회를 비롯, 독일방송교향악단,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베를린 도이체 심포니 교향악단, 기돈 크레머 & 크레메라타 발티카 등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연주자들이 찾아 다시 찾고 싶은 공연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2015년 '아시아 오케스트라 심포지엄'을 통해서 독일 베를린, 호주 시드니, 일본 오사카와 중국 베이징 등 각국 도시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을 초청해 개최한 공연을 통해 연주자와 해외 매니지먼트가 직접 듣고, 느끼고 최고라 평가하며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장으로서의 명성을 누리게 됐다.

■클래식 전용홀로서의 대구콘서트하우스

클래식 전용홀로 새로 태어난 공연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목적 공연장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출판기념회, 소방대피훈련 등등 공연장과 어울리지 않는 대관신청들이 줄을 잇는 등, 세계 최고의 전문 공연장의 특성이 반감됐다.

국내·외 확실한 인식을 시키기 위한 명칭의 개칭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과 음악팬들의 요구가 빗발쳤고 대구시는 공연장 고유의 특수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해 2015년 5월 조례 개정 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계 속의 대구콘서트하우스

40년 이상 대구문화의 상징이자 대구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대구시민회관은 국제화에 발맞춰 대구시민의 자랑으로 한국을 대표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연장으로 뻗어나간다. 세계 최고 아티스트와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우수한 대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

201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난 대구시민회관은 많은 대구시민들의 추억의 장소이다.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더 번갈음을 위해 새로운 이름을 입은 대구콘서트하우스가 세계 속의 대구를 알리는 공연장, 한국 최고의 클래식 전용극장으로 자리 잡고 뻗어나간다. 최윤희 기자



리디아 고, 2015 마지막주 세계랭킹 1위 자리 지켰다



10주 연속 1위
박인비 2위

‘천재소녀’ 리디아 고(18·뉴질랜드)가 2015년 마지막주에도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리디아고는 28일(한국시간) 발표된 톨렉스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랭킹포인트 11.78점으로 11.54점의 박인비(27·KB금융그룹)를 0.24점차로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지난 10월말 박인비를 제치고 세계랭킹 1위에 복귀했던 리디아고는 이로써 10주째 1위 자리를 지켰다.

프로 데뷔 2년차인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5승을 거두며 올해의 선수에 오르는 등 최고 레벨에 오른 리디아고는 2015년을 가장 높은 위치에서 마감하게 됐다.

당분간 공식 대회가 없기 때문에 리디아고의 1위 수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LPGA투어는 1월 마지막주에 새 시즌이 시작된다.

시즌을 마치고 휴식 중인 박인비는 10주째 2위를 유지하며 2015년을 마쳤다. 지난해까지 세계랭킹 1위였던 박인비는 올해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과 명예의 전당 조건 충족 등으로 최고의 한해를 보냈지만 랭킹에서는 리디아고에 밀렸다.

이밖에도 상위권 순위는 그대로였다. 스테이시 루이스, 렉시 톰슨(이상 미국),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이 3-5위를 지켰고, 평산산(중국), 김세영(22·미래에셋), 양희영(26·PNS), 김효주(20·롯데), 전인지(21·하이트진로)가 6-10위를 이었다.

고진영(20·넷스)과 박성현(22·넷스)은 각각 한 계단씩 상승해 25위, 27위가 됐다. 뉴시스

신태용 “새해 한국 축구, 올림픽 대표팀이 잘 열겠다”

“이탈 선수들 공백 메울 수 있어 반드시 본선 가겠다”

8회 연속 본선행을 향한 장도에 오른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신태용 감독이 “동생들이 스타트를 잘 끊겠다. 무조건 본선에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신 감독은 28일 오전 전지 훈련지인 아랍에미리트(UAE)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올림픽대표팀은 다음 달 8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23세 이하)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3위 안에 들어야만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다.

병신년(丙申年) 한국 축구의 첫 걸음이기에도 더욱 부담스럽다. 신 감독은 “우리가 스타트를 잘 끊어야 A대표팀도 내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대표팀 코치도 맡고 있어 어깨가 많이 무겁다. 분위기를 잘 띄워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예선부터 쉽지 않다. C조에 속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14일)과 예멘(16일), 이라크(20일)를 차례로 상대한다. 예멘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고로운 상대들이다.

우즈베키스탄과의 첫 경기는 신태용호의 순항을 가능할 중요한 일전이 될 전망이다. 역대 전적에서는 한국이 6승1무로 크게 앞서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기량이 좋아져 밤심은 금물이라는 평가다.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신 감독은 “젊은 선수들이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하면 분위기가 올라올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선수와 나 모두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속내를 털어냈다.

“이라크와의 경기도 중요한 일전이 될 것”이라고 말을 이은 신 감독은 “이기고 분위기를 탄다면 8강과 4강전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림픽대표팀은 제주와 울산에서의 전지훈련을 통해 다양한 전술을 마련한 상태다. 신 감독은 “4가지 정도의 전술을 준비했다. 8강과 4강까지 가려면 3-4가지는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현지에서 상대를 분석한 후 이에 맞는 최고의 포메이션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상과 소속팀 일정으로 빠진 이찬동(22·광주)과 최경록(20·상파울리), 박인혁(20·프랑크푸르트)의 공백 메우기에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신 감독은 “세 선수는 팀의 핵심이다. 베스트 11 중 3명이 빠진 것은 상당한 타격”이라면 서도 “기존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통해 많이 올라왔다. 팀 전술에 녹아들어 걱정은 없다. 이들이 얼마나 공백을 메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적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림픽대표팀은 카타르 입성에 앞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평가전을 갖는다. 신 감독은 “모든 것을 오픈하지는 않을 것이다. 상대가 분석을 할 것이니 많이 조심스럽다. 상대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지 긴장을 줄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력을 쏟기보다는 컨디션 점검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뉴시스

솔하임컵서 불거진 ‘컨시드 논란’ 올해 여자골프 10대 뉴스 1위 선정

미국과 유럽의 골프대항전 솔하임컵에서 불거진 ‘컨시드 논란’이 올해 여자골프 10대 뉴스 중 1위에 선정됐다.

미국 골프채널은 28일(한국시간) 2015년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중 ‘톱뉴스’로 선정된 것은 지난 9월 열린 솔하임컵 둘째날 나온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의 ‘컨시드 논란’이었다. 컨시드란 골프 매치플레이에서 그린에서 상대가 짧은 거리의 퍼트를 남겨뒀을 때 그 퍼트를 성공할 것으로 인정하고 퍼팅을 면제해 주는 룰이다.

당시 포볼 매치플레이에서 미국의 엘리슨 리-브리타니 린시킴과 맞붙은 유럽팀의 페테르센-찰리 월(잉글랜드)조는 16번홀까지 동점을 이뤘고 17번홀에서 파로 먼저 경기를 마쳤다. 엘리슨 리의 버디 퍼트가 홀 50cm 앞에서 멈춰섰고, 페테르센과 월이 그린을 가로질러 이동했다.

엘리슨 리는 컨시드를 받았다고 판단해 공을 집어들었지만, 이 순간 페테르센이 “컨시드를 주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해 엘리슨 리가 벌타를 받았다. 결국 이 경기는 유럽팀의 승리로 돌아갔고, 엘리슨 리는 경기 후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후 페테르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뜨거워졌고, 이틀남짓 4점차로 뒤지던 미국은 마지막 날 역전승을 거두며 끝냈다. 페테르센은 결국 이에 대해 “팀이 이기는 것을 스포츠맨십보다 더 우선했다”며 사과했다.

2위와 3위는 모두 ‘천재골프’ 리디아 고(18·한국명 고보경·캘리포니아)의 몫이었다. 리디아고가 올해 5승을 거두면서 데뷔 2년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올해의 선수에 오른 것이 2위에 선정됐고, 9월 예비암 챔피언십에서 역대 최연소 메이저 챔피언(18세4개월20일)에 오른 것이 3위에 올랐다.

4위는 솔하임컵에서 미국의 극적인 우승을 도운 제리나 필러(미국)의 마지막 홀 장거리 파퍼팅이 뽑혔다.

위는 박인비(27·KB금융그룹)의 커리어 그랜드슬램이었다. 박인비는 지난 8월 브리티시 여자 오픈에서 우승해 5대 메이저대회 중 4개(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US 여자 오픈, LPGA 챔피언십, 브리티시 여자 오픈)를 제패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하지만 골프채널은 이에 대해 ‘박인비의 그랜드슬램 논쟁’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영국왕립골프협회(R&A)가 여성회원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이 6위로 뽑혔다. R&A는 지난 2월 아나카 소렌스탐(스웨덴),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 등 7명의 임회를 허용했다.

7위는 18세의 캐나다 골프신동 브룩 헨더슨이 LPGA투어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 뽑혔고, 8위에는 올 시즌 메이저 클래식,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등 2승을 올린 렉시 톰슨(8위)이 올랐다.

9위는 솔하임컵에서 미국팀이 유럽팀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것이 선정됐고, 리디아고와 박인비가 LPGA투어 시즌 막판 벌인 타이틀 경쟁은 10위에 뽑혔다. 뉴시스



쇼트트랙 주니어세계선수권 대표선발전 개최

오늘 과천시 막올라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재열)은 28일부터 이틀간 과천빙상장에서 2015-2016 전국남녀주니어쇼트트랙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내년 1월29일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2016 쇼트트랙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파견선수 선발전 겸한다.

이에 대학 및 실업팀을 제외한 중·고등부는

올해 국내에서 열린 전국남녀쇼트트랙대회와 회장대회에서 입상했거나 결승에 진출했던 선수로 자격이 제한된다.

연령 기준은 1996년 7월생부터 2001년 6월생까지다.

62명이 참가신청을 한 가운데 남녀 각각 4명의 파견선수가 선발된다.

한국은 지난 2월 일본에서 열린 2015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김지유(잠실고)와 박지원(단국대) 등을 앞세워 전 종목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뉴시스

박병호, 리코스스포츠와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박병호의 광고, 스폰서십 홍보 등 업무 맡아 진행

리코스스포츠 에이전시는 28일 박병호(29·미네소타)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코스스포츠는 앞으로 박병호의 광고, 스폰서십, 홍보 등의 업무를 맡아 진행한다.

이예람 대표는 “최고의 실력은 물론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선수와 함께하게 돼 영광이다. 앞으로 박병호가 메이저리그에서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 매니지먼트에 관한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리코스스포츠는 최근 불티모어 오리올스와 계약한 김현수(27)의 매니지먼트다. 시카고 컵스에 입단한 권광민과 골프선수 변현민, 지영진, 지영민 등 20여명이 소속돼 있다.

◇대한야구협회, 게임원과 통계 인프라 계약
대한야구협회는 28일 게임원 커뮤니케이션즈와 기록통계 전산 인프라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야구협회는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기



록통계 전산 인프라 구축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 공고를 올렸다. 게임원을 포함한 5개 업체에서 입찰에 응했다. 사업실명회와 2차

평가를 거쳐 최고 평점을 기록한 게임원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게임원은 야구기록과 관련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성적관리 시스템, 증명서 발급 시스템, 신규 홈페이지 개설 등 전반적인 전산 인프라 구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한야구협회는 “이번 계약을 통해 선수와 학부모, 아마추어 야구팬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야구협회는 내년 5월말까지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뉴시스

최윤아, 올스타 팬투표 중간집계 1위...2만1062표

중부선발 KEB하나은행 서수빈 선수 최다득표

인천 신한은행의 최윤아(30)가 2015-16 올스타전 팬투표 중간집계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WKBL)이 28일 발표한 올스타 팬투표 1차집계에서 최윤아는 총 2만1062표를 획득해 남부선발(신한은행, KB, 삼성생명)과 중부선발(우리은행, KDB생명, KEB하나은행)을 통틀어 전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역시 신한은행 소속의 김단비(25·1만9593표)다.

1차집계에서 유일하게 2만표를 넘긴 최윤아는 시즌 초반 부상으로 한달 간 결장했음에도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최윤아는 올 시즌 현재까지 7경기에 출전해 2.43득점 3.7리바운드 4.4어시스트 1.0스틸 등을 기록 중이다.

최윤아는 지난 시즌 청주 KB의 변연하가 세운 역대 올스타 최다득표(3만2914표) 기록에

도전한다.

한편 부천 KEB하나은행의 신에 서수빈(20)은 중부선발에서 ‘깜짝’ 1위에 올랐다. 서수빈은 1만9433표를 얻어 팀 동료 첼시 리(1만9197표)를 근소하게 따돌렸다.

서수빈은 지난 시즌 신한은행에서 단 3경기만 출전했지만 올 시즌 KEB하나은행으로 이적한 이후 시스템으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서수빈은 평균 20분 가량을 뛰며 팀에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로 3년차로 지난 2라운드에서 생애 첫 라운드 MIP(기량발전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남부선발에서는 최윤아, 김단비를 비롯해 강아정(KB), 신정자(신한은행), 배혜운(삼성생명)이 상위 5위를 기록했고, 중부선발에서는 서수빈, 첼시 리와 함께 한재진, 이경은(이상 KDB생명), 박혜진(우리은행)이 상위 5위에 포함됐다.

올스타 팬 투표는 2016년 1월 8일까지 진행하며 기자단 투표와 합산해 최종 명단을 발표한다. 올스타전은 내년 1월 17일 충남 당진시 내체육관에서 열린다. 뉴시스



영천 이웃사랑 실천 열기로 후끈

영천시민회관, 연말연시 맞아 경로당 찾아 위문공연 펼쳐

아리랑가 쓰라린가 영천인가, 아리랑 고개
로 날 넘겨주소~~ 영천아리랑 가락이 경로당
에서 울려퍼졌다.

영천시민회관 직원들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4일 오후 2시 영천시 문내동에 위치한
경로당(회장 권순명)을 찾아 경로당 위문공
연을 가졌다. 영천아리랑 회원들을 초청, 노
인 40여명을 모시고 영천아리랑을 비롯한 우
리 민요 공연을 펼쳤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직원들은 경로당 내의 환경정비 및 여러 가지
생활품을 전달하고 노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가족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영천시에서는 매년 성탄절, 연말연시의 들
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공무원 본연의 봉
사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 부서
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전개
하고 있다. 영천시민회관에서 펼친 이번 행사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해 진정한 도움을 주고
자 했으며 연말연시의 이웃사랑 나눔 동참과
더불어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어른을 공



경하는 사회공포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권순명 경로당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
역 노인들을 모시고 뜻깊은 행사를 열어준 영
천시민회관 직원들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노인들에
게 쏟아 따뜻한 지역사회 마련에도 한몫해 달
라"고 당부했다.

한영희 시민회관장은 "가족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연말연시 분위기를 조
성하고자 이번 경로당 위문활동을 계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 및 기관을 정
기적으로 방문, 더 많은 사랑의 온정을 나누
겠다"고 전했다.

김일만 기자

경주 (주)일진그룹의 선포 없는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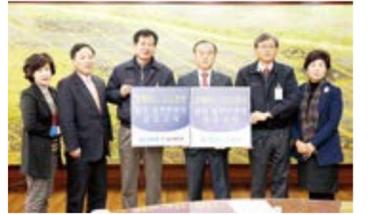
(주)일진(주)일진베어링 이웃돕기 성금 각각 1000만원씩 기탁

경주의 대표 강소기업인 (주)일진(대표이사
박인배)과 (주)일진베어링(대표이사 한정환) 임
직원들은 지난 23일 경주시청을 방문,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일진그룹은 국내공장 11개소(경주 9개소),
해외공장 9개소 등 20개소를 운영하면서 국
내 기업의 가장 취약한 분야인 부품·소재 산
업의 대표 기업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어
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증대를 총력을 기울
려 2015년도 5억달러 수출을 달성하는 쾌거
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다.

자동차부품사업장으로 경주에 (주)일진과 (주)
일진베어링이 있으며 휠베어링, 로드, 링크,
도어체크 등 자동차 핵심부품을 생산해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일진그룹은 2011년부터 매년 2000만원씩



불우이웃 성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2012년
부터는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모금된 성금
을 지역 저소득 청소년과 아동세대의 장학금
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그들과 임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기업문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윤용환 기자

영주농협, 영주시인재육성 장학금 1천만원 기탁

영주농협협동조합은 28일 영주시인재육성
장학회를 방문해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
했다.

기탁식에서 남정순 조합장은 "영주농협이
영주의 미래 인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기탁금은 영주농
협 전체 임직원들이 2015년 한 해 동안 활발
한 사업추진을 통해 업적을 인정받아 수령하
게 된 포상금을 기부하기에 더욱 뜻 깊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영주농협협동조합은 이날 장학금 기탁 외
에도 농협자체장학사업으로 매년 대학생 100
명에게 각 100만원, 고등학생 50명에게 각 30
만원 등, 총 1억1500만원의 장학금을 조합원
자녀에게 전달하고 있다.

조합원 자녀 장학금은 1994년부터 지금까
지 총 누적금액 13억9590만원으로 농가 교육
비 해소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영주농협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 사
업을 확대하고, 지역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금



융·경제 체형 교육, MBC 노래교실 등을 활성화
해 농업과 농촌 가치의 이해 및 건전 문화
교육을 높이는 등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통해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조합원들
에게 필요한 능력이 되도록 임직원이 함께 노
력하고 있다.

한편 장옥현 이사장은 "정성으로 마련된 장
학금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소중하게 쓰여 지도록 하겠다"며 장학금
기탁에 고마운 뜻을 전했다.

전상기 기자

‘정부3.0’과 함께하는 대구도시공사의 봉사활동

홀몸노인 방한복 전달, 장애인 맞춤형 시설개선 점자·음성변환 서비스 등

대구도시공사 청아람봉사단은 지난 23일
홀몸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
개했다.

이날 대구도시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청아
람봉사단은 가정복지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복을 전달했다. 또 홀몸노인들의 집을 방
문해 문풍지 시공을 하는 등 지역내 소외계층
들에게 사랑과 나눔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구도시공사는 장애인, 독거노인,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도시공사는 올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음성 변환 서비스를 실시해 시각장애우
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
역의 소외 계층들을 위해서는 배리어프리 장
에인 맞춤형 시설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올



해 109세대, 371건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
했다.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은 "추운 겨울 나
눔 사랑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는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협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공사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정부 3.0 정책의
가치 실현에 전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식 기자

(주)에스코리아, 상주시장학회 장학금 500만원 쾌척

상주시 함창읍 함창 제2농공단지에 위치
한 (주)에스코리아 이성진 대표이사가 12월 24
일 시청을 방문해 (재)상주시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성진 대표이사는 "상주시장학회가 추진
하는 장학기금 200억원 조성계획에 힘을 보
태고, 지역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장
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기탁사유를 밝
혔다.

이정백 이사장은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데
도 관내 기업들이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줘 고맙고, 기탁자들의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인
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기탁한 (주)에스코리아는 디지털
도어락 및 전동 건조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2007년 대구에서 설립, 2015년 상주시 함창
제2농공단지로 본사를 이전 후 지역 고용창출
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11년 중소기업브랜드 대상과 2013년 중소
기업혁신대상 수상 등 연매출 70억원에 이르
는 중소기업이다.

오재영 기자

함께해서 따뜻한 겨울 이웃사랑 나눔 봉사활동

영천클린환경팀

영천시 클린환경팀(팀장 이병성)은 먹고 마
시는 슬자리 송년회를 지양하고 조용히 한해
를 마무리하면서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될
수 있도록 자매결연마을인 대창면 용호리를
28일 방문, 훈훈한 온정을 나누고 사랑을 전
하는 뜻 깊은 연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클린환경팀 직원들과
환경미화원들이 작은 정성이나마 힘을 모아
독거노인 및 결손가정 등 소외된 이웃을 방
문, 위로하고 생필품 등을 전달했으며, 마을주
변 청소·소하천 자연정화 활동, 경로당 어르
신 방문 및 다과대접 등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펼쳤다.

용호리 이장은 "매년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추운 날씨에 멀리까지 우리 마을을 찾아와 주
변 환경정화도 해주고, 어려운 독거노인과 결
손가정 및 마을 어르신들께 생필품도 전달해
주는 등 큰 도움이 돼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
다"고 전했다.

김일만 기자



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연탄나눔 따뜻한 겨울



어려운 이웃에 연탄 1000장 직접 전달

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회원과 함께, 군민과 함께 감
동지킴이 구현'이라는 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
회의 슬로건을 몸소 실천하고 연말을 맞아 지
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
됐다.

이날 행사에서 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는 하반기 영덕블루로드 달맞이 야간산행 때
운영했던 먹거리센터 수익금과 회원 기부금
으로 구입한 연탄 1000장을 어려운 이웃들
에게 직접 배달하는 뜻 깊은 시간으로 진행
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회진 영덕군수도 함께 참여해 연말연시 나
눔의 행사를 더욱 뜻 깊게 했다.

김상욱 회장은 "앞으로도 농촌일손돕기, 다
문화가정 돕기, 어르신 한끼 식사 봉사, 연탄
나눔 봉사 등 어려운 이웃과 군민들에게 다
갈 수 있는 다양한 나눔행사를 가져 나가겠
다"고 밝혔다.

김승건 기자

봉화군, 추운 날씨 줄 이은 이웃돕기 성금 기탁

봉화군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줄 이은
이웃돕기 성금 기탁 모금으로 훈훈함을 전하
고 있다.

봉화 관내 노인요양시설(봉화요양원,봉화
유리요양원,봉화노인복지센터)는 지난 23
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성금
150만원과 연탄쿠폰 45만원을 봉화군에 전
달했다.

이날 성금을 기탁한 시실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들이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작
은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
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의 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같은 날 금강래미콘 박우선 대표는
봉화군청 군수실을 방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박우선 대표는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봉화
군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



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
한 배려와 따뜻한 정을 나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
다"고 전했다.

한편 봉화군은 전달받은 성금을 경북사회
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해 봉화군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상기 기자

영천시 구내식당의 '잔반없애기' 혁명

영천시청 직원들이 일상생활 속에 기적 하나를 일궜다. 구내식당 '잔반없애기'다. 한마디로 반찬을 남기지 않겠다는 운동이다. 오래 전부터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바도 있지만 근래 희미해진 잔반남기지 않기 운동을 벌이는데 성공,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였는가 하면 식재료비가 절감됐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영천시의 잔반없애기는 지난 8월로 거슬러 올라 간다. 시작부터 철저히 완벽을 추구했다.

한달에 한 번, 1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는 유례없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영천시는 운영 첫 날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일일평균 200여명 정도가 50kg에 가까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 오던 것이 잔반없애기 첫 날 부터 생선뼈와 과일 껍지 등을 제외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거의 배출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음식물 식재료비도 잔반없애기 첫 달인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넉 달간 작년대비 17%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식재료비가 얼마나 절감됐느냐 하면 지난 8월에는 전년도 같은 달 보다 16%가 줄

었고, 9월에는 24%, 10월에는 19% 11월에는 9.8%로 등으로 식재료 구입비 절감효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먹을 만큼 덜고 잔반을 남기지 않으니 당연히 식재료비가 덜 들어가는 선순환의 구조가 된 것이다. 정부가 나서도 되지 않는 일을 영천시가 거뜬히 해낸 것이다. 그야말로 '하면 된다'는 의지의 표출이자 영천시 직원들의 단합된 의지가 거둔 성과물이다.

영천시는 절감된 식재료비를 직원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후식 제공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신선한 제철과일과 견과류 등의 제공회수를 늘리는가 하면 지난 24일에는 잔반제로화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간식(떡, 감주)을 제공해 지친 후시간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지속적인 동참의지를 다졌다. 한마디로 '굉장하고 알 먹는'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영천시의 잔반없애기운동은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측면에서 시작됐지만 이런 효과야말로 영천시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면서 다른 업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파급효과까지 기대된다.

영천시의 모든 관공서와 식당들이 참여해서 영천시 전역에서 잔반없애기가 아름다운 전통으로 확립됐으면 한다.

'불효자 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재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민사 재판의 단골 손님이다. 재산을 물려받은 뒤에 자식이 부모를 나몰라라해도 다시 재산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부모를 잘 모시는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준다는 이른바 '효도계약'을 한 경우라면 사정은 달라져야 한다. 마침 대법원이 효도계약을 어긴 아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판결, 두 얼굴의 효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다. 사업가인 유모 씨는 2003년 대지 250㎡ 규모의 2층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물려줬다. 대신 '부모와 함께 살며 충실하게 부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한다'는 각서를 함께 받았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재산을 받은 뒤 부모와 함께 살기는 했지만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모습으로 돌변했고, 허리 디스크로 움직이기 불편한 유씨 부인을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쟁길 이익을 다 챙긴 뒤 효자가 불효자로 표변한 것이다.

견디다 못해 유씨가 "저택 명의를 돌려달라"고 하자 아들은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지 않나"며 막말까지 하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유씨는 딸네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소송을 냈고 1, 2심 법원

에 이어 대법원도 '효도계약 각서'를 근거로 명의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부양 조건부 증여인 때문에 약속을 위반한 아들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씨는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사실상 아들을 잃었다. 이런 참혹한 비극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나마 이번 경우는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고 불행 시 계약해제나 다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기 때문에 가능했다. 천우신조했던 셈이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런 절차를 생각하지 않고 재산을 다 남긴다.

백세시대를 넘보는 요즘에도 노령에 들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이 상례다. 심지어 부모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패륜적 범죄까지 흔하게 벌어진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불효자 방지법'이 만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재산을 자녀에게 주고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부모세대를 구제하기 위해 증여재산 환수에 대한 민법을 개정하고 존속 폭행에 대해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부작용을 겁내 묵힐 수는 없다.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강한 신문 **광역일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대표 **김성용** | 편집인 **김 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옥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익을... 생각한다



최종찬의 세상읽기 사회적 유동성 지표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이상적인 사회는 빈부 격차가 없이 누구나 고루 잘사는 사회일 것이다. 과거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한다"고 해 절대적 평등을 추구했다.

그러나 누구나 똑같이 배분받는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면 그 사회는 다 같이 못살게 된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똑같이 분배를 받으면 누가 열심히 일할 것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다. 부모의 배경이나 출신 지역, 학벌 등에 관계없이 본인의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였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가난해 오늘날의 재벌과 같은 기득권층이 별로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정주영 회장 등 대부분의 정계, 재계 인사들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본인의 노력으로 성공한 입지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

는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기득권층을 형성하게 됐다. 재벌, 정치인, 의사, 변호사 등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의 CEO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2, 3세대이다. 삼성, 현대, SK, LG, 한화, 두산, 롯데 등 모두 물려받은 경우이다. 반면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의 오너들은 모두 스스로 창업한 부자들이다. 사회적 유동성 증대는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

우리 사회는 차츰 계급사회가 되면서 사회적 유동성(Social Mobility), 즉 계층별 신분 상승이 과거에 비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사람은 현재는 어렵더라도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참고 견디게 된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도 잘 될 희망이 없다면 좌절하게 되고 나아가 사회체제를 불신하게 될 것이다. 제도 개혁도 사회적 유동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예 중의 하나가 로 스쿨(Law School)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신분 상승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사시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 사시제도가 있어서 고졸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법조인이 되려면 막대한 교육비를 부담해 대학은 물론, 대학원까지 졸업해야 한다. 로스쿨은 법조인의 자질 향상이란 취지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사회적 유동성 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가난한 집 자녀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장학금 제도 확충 등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고교 평준화도 도입 배경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는 명분 하에 도입됐다. 현실은 과거에 비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입학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복잡한 입학제도 등으로 부모가 초등학교부터 잘 관리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저소득층 부모들은 이와 같은 관리를 하기 어렵다.

문제는 사회적 유동성의 중요성에 비해 사회적 관심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적 유동성과 관련해 경제성장률같이 국민적 관심을 끌, 신뢰할 만한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5년간 사회적 유동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표가 발표되면 그 원인 분석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적 유동성의 지속적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유동성 지표를 개발해 5년마다 공표하고 각종 제도 개혁시 사회적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윤신근의 애완동물이야기



윤신근

수의사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광견병 발생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 정부에서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씩 예방접종을 시중 동물병원에 공급해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예방접종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광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뇌를 공격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광견병에 걸리면 개는 행동 변화에 따른 불안감과 극도의 우울함과 공격성이 역력해지며, 난폭해진 시기에는 무엇이든 닥치는대로 물어버린다.

또한 시끄러운 소음이나 밝은 빛 등은 개의 공격 기능을 더욱 자극하게 된다. 경련 발생 뒤 침묵기가 계속되면 인후부의 마비로

광견병 걸리면 이렇게 된다<117>

인해 목소리가 변하게 되고 침도 많이 흘리게 되며 먹고 마시는 기능 또한 상실된다. 아래턱이 마비돼 입을 벌리기 힘들고, 혀와 아래턱은 느슨하게 된다. 그 뒤 전신 경련과 함께 혼수상태가 와 죽게 된다.

물린 상처 부위를 통해 바이러스가 감염되지만 박쥐가 서식하는 동굴에서는 공기 전염된다는 보고도 나와 있다.

일단 개에게 물리면 일반 병원에 가서 외상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문 개는 입원실이 준비된 동물병원에 가서 7-10일 동안 입원시켜 동물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세계보건기구(WHO)는 권장하고 있다. 개의 타액을 채취해 항원 검사를 해보면 광견병 유무를 진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원한 개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광견병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사람의 외상 치료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홍역, 사람에게 옮기는 않지만... 홍역은 개, 너구리, 스컹크, 여우, 늑대 등 야생동물에게서도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환이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으며 어릴 때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게 잘 발생한다. 특히 어린 개나 늑은 개에게 많이 발생한다.

누런 콧물과 눈곱, 기침, 식욕 부진,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며 39.5-41도의 높은 열이 난다. 증세가 악화돼 신경 증상이 보이면 안면부, 두부, 사지 및 전신에 경련을 일으키며 한쪽으로 계속 회전하는 등 치료가 어렵게 된다.

타수를 방지하기 위해 수액을 공급하고 2차 세균 감염 방지를 위해 광범위 항생제 등을 투여해 주며 아울러 면역 억제제 등을 주사해 주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

아무리 훌륭한 치료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간호를 잘 해주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하다. 보충식으로는 계란이나 고단백 식품(뉴트리얼, 동물의사 처방식 p/d, a/d 사료) 등이 있다.

예방 접종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접종해 줘야 한다. 또한 감염된 개와 접촉을 피하고 항상 튼튼한 체력을 유지해 줘야 한다.

청정자연 갈라파고스의 그린에너지 프로젝트

대성그룹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성그룹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이끄는 대표적인 그린 에너지 기업으로 세계 에너지 빈곤국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몽골 GEP / 나란 / 탄다르 사업

에티오피아 사업

카치호스탄 사업

빙글라데시 사업

PRO BONO
for the Public Good

PRO BONO는 "공익추구가 바로 회사의 수익모델"이라는 대성그룹의 100년 비전입니다.

경제
양극화
37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주거에 복지를 더하다



집은 우리 삶의 기본적인 터전입니다.
집을 지원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지까지 더하여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삶의 질이 높은 희망의 터전을 만들수 있게
LH가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가치의 시작
from LH

LH의 주거복지사업은?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 젊은층 등 자력으로 주거문제 해결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과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희망사회 구축과 국민주거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LH의 주거복지 사업분야

-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각종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사업
- 저소득층의 임차료 혹은 주택개보수를 위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사업
- 쪽방, 가출청소년 등 주거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 주거복지 거버넌스, 지역아동센터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지원 프로그램 등

